

# 『溫病條辨·解兒難』에 관한 연구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情報學科<sup>2</sup> · 韓國傳統醫學研究所<sup>3</sup>  
李碩宰<sup>2</sup> · 琴炯樹<sup>1, 2, 3 \*</sup>

## 关于『溫病条辨·解儿难』的研究

李碩宰<sup>2</sup> · 琴炯樹<sup>1, 2, 3 \*</sup>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情報學科<sup>2</sup>  
韓國傳統醫學研究所<sup>3</sup>

『溫病条辨』是明清时代的代表作之一，1798年吴鞠通编辑的『溫病条辨』构成了序4首，凡例14条，原病篇19条，上焦篇58条，中焦篇102条，下焦篇78条，杂说，解产难，解儿难等。其中的『解儿难』共由24篇组成。写『解儿难』的目的是为了让孩子们从因为思想短浅的父母或者医术太差，诊断和治疗都轻率的医生而引起的疾病那里解脱出来。『解儿难题词』说明了编写解儿难理由。在『儿科总论』，『俗传儿科为纯阳辨』，『儿科用药论』，『儿科风药禁』，『泻白散不可妄用论』，『六气当汗不当汗论』提示了小儿科疾病特征和对用药的办法。在『痘因质疑』，『湿症或问』，『小儿易痘总论』，『痘病总论』，『痘有寒热虚实四大纲论』，『小儿痘病总论共有九大纲论』提示了痘病的病因和辨证论治。『疳疾论』中提示了疳疾的证治。在『痘证总论』，『痘证禁表药论』，『痘证初起用药论』，『治痘明家论』，『痘疹稀少不可恃论』，『痘证限期论』，『行浆务令满足论』提示了痘证的病因病机，用药，禁忌，诊断，辨证论治，限期等痘证的全体部分。『疹论』提示了麻疹的证治。除了这些还有对偏胜说明的『万物各有偏胜论』和连接草木和生长化收藏说明的『草木各得一太极论』。在这说明的小儿科疾病是痘，疳，痘，疹等4大疾病，大胆地指正了以被所知的错误内容和一般医生所误解的内容，在别的医书上没记载过的内容也有所补充而且还指正了做为孩子们的监护人的父母应遵守的细微部分。

关键词: 溫病条辨, 解儿难, 痘, 疳, 痘, 疹

## I. 緒論

『溫病條辨』은 明清시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서

\* 교신저자 :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E-mail : kskeum@wonkwang.ac.kr  
Tel : 063-850-6808.  
접수일(2008년 10월 21일), 수정일(2008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12일)

明代인 1798년에 吳鞠通이 편찬하였는데 『溫病條辨』은 序 4首, 凡例 14條, 原病篇 19條, 上焦篇 58條, 中焦篇 102條, 下焦篇 78條, 雜說, 解產難, 解兒難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解兒難』은 총 24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생각이 짧은 부모와 수준이 낮거나 진단과 치료를 경솔하게 하는 의사 때문에 생긴 질병에서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解兒難』을 쓰게 되었다. 소아과의 痘, 疳, 痘, 疹 등을 다

론 내용으로서 이미 알려진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과 일반 의사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하였고 다른 醫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도 보충하였다. 이로써 『解兒難』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II. 研究方法

(1) 원문은 人民衛生出版社의 『溫病條辨』<sup>1)</sup>을 참고하였다.

(2) 白話文은 중국 唐代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清代에 만들어진 『溫病條辨』중 解兒難篇 본문에는 古文과 白話文이 함께 사용되어서 懸吐를 별도로 달지 않았음을 밝힌다.

## III. 本論

### 1. 解兒難題詞

#### 【原文】

兒曷為乎有難<sup>(1)</sup>? 曰：天時人事為之也，難於天者一，難於人者二。天之天德曰生，曷為乎難兒也? 曰：天不能不以陰陽五行化生萬物；五行之運，不能不少有所偏，在天原所以相製，在兒任其氣則生，不任其氣則難，雖天亦莫可如何也，此兒之難於天者也。其難於人者奈何? 曰：一難於兒之父母，一難於庸陋之醫。天下之兒皆天下父母所生，天下父母有不欲其兒之生者乎? 曷為乎難於父母耶? 曰：即難於父母欲其兒之生也。父母曰：人生於溫，死於寒。故父母惟恐其兒之寒也。

父母曰：人以食為天，飢則死。故父母惟恐其兒之飢也。天下之兒，得全其生者此也；天下之兒，或受其難者，亦此也。諺有之曰：小兒無凍餓之患，有飽暖之災。此發乎情，不能止乎義禮，止知以慈為慈，不知以不慈為慈，此兒之難於父母者也。天下之醫，操生人之術，未有不欲天下之兒之生，未有不利天下之兒之生，天下之

兒之難，未有不賴天下之醫之有以生之也。然則醫也者，所以補天與父母之不逮<sup>(2)</sup>以生兒者也，曷為乎天下之兒難於天下之醫也? 曰：天下若無醫，則天下之兒難猶少，且難於天與父母無怨也。人受生於天與父母，即難於天與父母，又何怨乎? 自天下之醫愈多，斯天下之兒難愈廣，以受生於天於父母之兒，而難於天下之醫，能無怨乎? 曷為乎醫愈多，而兒之難愈廣也? 曰：醫也者，順天之時，測氣之偏，適人之情，體物之理，名也，物也，象也，數也，無所不通，而受之以謙，而後可以言醫，尤必上與天地呼吸相通，下與小兒呼吸相通，而守之以誠，而後可以為醫。奈何挾生人之名，為利己之術，不求歲氣，不畏天和，統舉四時，率投三法，毫無知識，囿<sup>(3)</sup>於見聞，並不知察色之謂何，聞聲之謂何，朝微夕甚之謂之何，或輕或重之謂何，甚至一方之中，外自太陽，內至厥陰，既與發表，又與攻裡，且堅執小兒純陽之說，無論何氣使然，一以寒涼為準，無論何邪為病，一以攻伐為先，謬<sup>(4)</sup>造驚風之說，惑世誣民；妄為疳疾之丸，戕<sup>(5)</sup>生伐性；天下之兒之難，寧<sup>(6)</sup>有終窮乎? 前代賢醫，歷有辨難，而未成書? 瑋雖不才，願解兒難。

#### 【字句解】

- (1)難: 재난, 여기서는 질병을 의미함.
- (2)逮: 이르다. 갖추다.
- (3)囿: 사로잡히다. 치중하다.
- (4)謬: 틀리다. 엉터리다.
- (5)戕: 해치다. 죽이다.
- (6)寧: 어찌, 설마

#### 【解釋】

소아에게 어찌 질병이 있겠는가? 말하기를 天時와 人事가 그렇게 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질병이 생기는 것이 한가지이고 사람에게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 또한 한 가지이다. 하늘의 큰 덕을 생이라 하는데 어찌 질병이 생기겠는가? 말하기를 하늘은 陰陽五行으로 만물을 화생할 수 없는데 五行의 운행은 적잖이 치우치는 바가 있으며 天原에서 서로 제약하는 까닭은 소아에게서 그 기운을 감당하면 살고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면 질병이 생기니 비록 하늘이라 할지라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하늘로부터 생긴 질병인 것이다. 그 질병이 사람으로부터 생긴 것은 어떠한가? 말하기를 하나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생긴 질병이고

1) 吳瑭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또 하나는 하찮은 의사로부터 생긴 질병이다. 세상의 아이들은 모두 세상의 부모들이 낳은 것이니 세상의 부모들은 그 자식이 잘 자라지 않기를 바라겠는가? 어찌 부모로부터 생긴 질병이 만들어진다 말인가? 말하기를 질병이라는 것은 부모가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데에 있다. 부모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따뜻한데서 살고 찬데서 죽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오로지 그 아이가 추워할까 걱정한다. 부모가 말하기를 사람은 음식을 하늘로 삼으니 굶주리면 죽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오로지 그 아이가 굶주릴까봐 걱정한다. 세상의 아이들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며 세상의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받는 것도 또한 이것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축거나 굶주려서 오는 질병이 없고 배부르거나 따뜻하게 해서 오는 질병은 있다. 이것은 情에서 나타나서 義와 禮에서 머무를 수 없었고 단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여길 줄 알았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길 줄 몰랐으니 이것이 부모로부터 생긴 질병인 것이다. 세상의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없으며 세상의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없으며 세상의 아이들의 질병은 세상의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술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잘 자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의사라는 것은 하늘과 부모가 다 갖추지 못한 것을 보충해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인데 어찌 세상의 아이들은 세상의 의사로부터 질병을 받는 것인가? 말하기를 만약에 세상에 의사가 없다면 세상의 아이들의 질병은 오히려 줄어들고 게다가 하늘과 부모로부터 생긴 질병이라면 원망도 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늘과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이니 하늘과 부모로부터 생긴 질병을 보고 어찌 원망을 하겠는가? 세상의 의사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의 아이들의 질병은 갈수록 넓어지니 하늘과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아이들은 세상의 의사로부터 생긴 질병을 보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질병도 많아진다 말인가? 말하기를 의사라는 것은 天時에 순응하고 氣의 치우침을 예측하고 사람의 상황에 적응하고 사물의 이치를 통찰해

서 名, 物, 象, 數 등 통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겹치 않게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에 의사라 말할 수 있다. 특히 반드시 위로는 天地와 숨 쉬는 것이 서로 통하고 아래로는 소아와 숨 쉬는 것이 서로 통하면서 성의 있는 태도를 지킨 후에야 의사라 말할 수 있다. 어찌 사람을 살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運氣는 살피지 않고 天和한 기운은 敬畏하지 않으며 四時를 다 구분하지 않고 경솔하게 汗, 吐, 下 三法만을 사용하여 조금의 지식도 없이 듣는 것에만 치중을 하여서 望診이 무엇인지, 聞診이 무엇인지, 아침에는 輕하고 저녁에는 重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輕이고 무엇이 重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한 처방 중에 밖으로는 太陽經에서부터 안으로는 厥陰經에 이르는 약물이 다 있으며 發表藥 뿐만 아니라 攻裏藥까지 다 있으며 소아가 純陽이라는 설에만 집착하여 어느 氣가 그렇게 했는지를 막론하고 오로지 寒涼藥만을 표준으로 삼고, 어느 邪氣가 病을 일으켰는지를 막론하고 오로지 攻伐하는 것만을 우선으로 삼으며, 驚風이라는 말을 엉터리로 꾸며서 惑世誣民하고 疳疾을 다스리는 丸藥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생명을 해치니 세상의 아이들의 질병이 어찌 끝나는 날이 있겠는가? 前代의 훌륭한 의사가 역대로 어려운 점을 변증해 놓았으나 책으로 전해져 내려오질 않으니 吳瑭인 내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아이들의 질병을 풀기를 바란다.

#### 【考察】

본 論은 吳鞠通이 解兒難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이들이 질병이란 재난을 얻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가 자연계에 있으며 두 번째는 부모와 수준 낮은 의사에게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너무 따뜻하게, 너무 배불리 먹이다 보니 질병이란 재난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의사가 수준이 낮거나 진단과 치료를 경솔하게 해서 질병이란 재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병이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解兒難을 쓰게 된 것이다.

## 2. 兒科總論

#### 【原文】

古稱難治者，莫如小兒，名之曰啞科。以其疾痛煩苦，不能自達；且其臟腑薄，藩籬<sup>(1)</sup>疏，易於傳變；肌膚嫩，神氣怯，易於感觸；其用藥也，稍呆則滯，稍重則傷，稍不對証，則莫知其鄉<sup>(2)</sup>，捉風捕影，轉救轉劇<sup>(3)</sup>，轉去轉遠；惟較之成人，無七情六欲之傷，外不過六淫，內不過飲食胎毒而已。然不精於方脈婦科，透徹生化之源者，斷不能作兒科也。

汪按：小兒但無色慾耳，喜怒哀恐，較之成人更專且篤，亦不可不察也。

【字句解】

- (1)藩籬：울타리, 담. 여기서는 肌膚를 가리킴.
- (2)鄉：지위, 방향, 변화
- (3)轉~轉~：~할수록 더욱더

【解釋】

옛날부터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소아만 한 것이 없으니 啞科라 하였다. 질병의 통증이나 괴로움을 스스로 표현할 수 없으며 臟腑가 薄弱하고 肌膚가 성겨서 傳變하기가 쉬우며 肌膚가 여리고 神氣가 소심하여 쉽게 感受받으며 用藥에 있어 조금만 머물러도 체하고 조금만 맹렬해도 손상이 되고 조금만 證에 맞지 않아도 변화를 알기가 힘들고 바람이나 그림자만 잡다보니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더 심해지고 제거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오로지 성인보다 七情六欲의 손상이 없으며 外感으로는 六淫의 邪氣를 벗어나지 않고 內傷으로는 음식과 胎毒을 벗어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內科와 婦人科에 정통하지 못하고 生化의 근원을 분명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절대로 소아과 의사가 될 수 없다.

汪按：소아는 단지 色慾만 없을 뿐 喜, 怒, 悲, 恐은 成人에 비해서 더욱 특별할 뿐 아니라 심하므로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考察】

소아들의 특징과 소아과병의 특징을 총괄적으로 논술하였다. 내과와 부인과에 비해 病證의 원인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지만 가장 치료하기가 어렵다. 우선은 표현을 하지 못하며 臟腑가 薄弱하고 傳變하기가 쉬우며 邪氣에 感受받기가 쉬우며 用藥에 있어서도 조금만 증에 맞지 않으면 그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치료할수록 더 심해진다. 그래서 吳鞠通은 내과

와 부인과에 정통하고 나서야 소아과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3. 俗傳兒科爲純陽辨

【原文】

古稱小兒純陽，此丹灶家<sup>(1)</sup>言，謂其未曾破身耳，非盛陽之謂。小兒稚陽未充，稚陰未長者也。男子生於七，成於八；故八月生乳牙，少有知識；八歲換食牙，漸開智慧；十六而精通，可以有子；三八二十四歲真牙生(俗謂盡根牙)而精足，筋骨堅強，可以任事，蓋陰氣長而陽亦充矣。女子生於八，成於七；故七月生乳牙，知提攜；七歲換食牙，知識開，不令與男子同席；二七十四而天癸至；三七二十一歲而真牙生，陰始足，陰足而陽充也，命之嫁。小兒豈盛陽者哉！俗謂女子知識恒早於男子者，陽進陰退故也。

【字句解】

- (1)丹灶家：道家

【解釋】

옛날에 小兒純陽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道家의 말로 소아가 아직 眞精을 泄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며 왕성한 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아가 稚陽이 충만하지 않고 稚陰이 자라지 않은 것이다. 남자는 칠에서 만들어져 팔에서 이루어지므로 팔 개월에 젖니가 생겨나고 약간의 지식을 지니게 되며, 팔세에 이빨을 갈기 시작하고 점점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며 16세에 精이 통하여 자식을 가질 수 있으며 24세에 사랑니가 나고 精이 충족이 되어 근골이 강건해지고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은 대개 陰氣가 길러지고 陽 또한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여자는 팔에서 만들어져 칠에서 이루어지므로 칠 개월에 젖니가 생겨나고 끌어안는 것을 알게 되며 칠세에 이빨을 갈기 시작하고 지식이 열리며 남자와 함께 앉지 말아야 하며 14세에 天癸가 이르며 21세에 사랑니가 나고 陰이 비로소 충족되며 陰이 충족되고 陽이 충만해지면 시집가게 된다. 소아가 어찌 陽이 왕성하겠는가! 속세에 여자의 지식이 항상 남자보다 빠르다고 한 것은 陽이 나아가고 陰이 물러난 까닭이다.

【考察】

본 논문은 소아남자와 소아여자의 生長發育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위의 원문에서 가장 중요시하여야 할 말은 소아는 純陽이지 盛陽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아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다.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純은 순수하다, 섞임이 없다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壯火와 같은 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아는 지나치게 공격하는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生長發育에 관한 내용은 『素問·上古天真論』의 내용<sup>2)</sup>을 참고한 것으로 소아적인 측면을 좀 더 보충한 것이다.

#### 4. 兒科用藥論

##### 【原文】

世人以小兒為純陽也，故重用苦寒。夫苦寒藥，兒科之大禁也。丹溪謂產婦用白芍，伐生生之氣，不知兒科用苦寒，最伐生生之氣也。小兒，春令也，東方也，木德也，其味酸甘，酸味人或知之，甘則人多不識。蓋弦脈者，木脈也，經謂弦無胃氣者死。胃氣者，甘味也，木離土則死，再驗之木實，則更知其所以然矣，木實惟初春之梅子，酸多甘少，其他皆甘多酸少者也。故調小兒之味，宜甘多酸少，如錢仲陽之六味丸是也。苦寒之所以不可輕用者何？炎上作苦，萬物見火而化，苦能滲濕，人，保虫也，體屬濕土，濕淫固為人害，人無濕則死。故濕重者肥，濕少者瘦；小兒之濕，可盡滲哉！在用藥者以為瀉火，不知愈瀉愈瘦，愈化愈燥。苦先入心，其化以燥也，而且重伐胃汁，直致癆厥而死者有之。小兒之火，惟壯火可滅；若少火則所賴以生者，何可恣用苦寒以清之哉！故存陰退熱為第一妙法，存陰退熱，莫過六味之酸甘化陰也。惟濕溫門中，與辛淡合用，燥火則不可也。余前序溫熱，雖在成人，凡用苦寒，必多用甘寒監之，惟酒客不禁。

##### 【解釋】

속세의 사람들은 소아를 純陽이라고 여겼으므로 苦寒을 重用한다. 무릇 苦寒한 약은 소아과에서 크게 금지하는 약물이다. 朱丹溪는 產婦에게 白芍藥을 사

용하면 生生之氣를 해친다고 하면서 소아과에 苦寒한 약물을 사용하여 生生之氣를 크게 해치는 것은 몰랐을까? 소아는 봄의 계절이고 동쪽이며 木德이고 酸甘한 味에 속하는데 신맛에 속한다는 것을 간혹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甘味에 속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대개 弦脈은 木의 脈으로 經에 이르기를 弦脈에 胃氣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였다. 胃氣는 甘味인데 木이 土를 떠나면 죽으며 다시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렇게 된 까닭을 알게 되니 나무의 열매는 오로지 초봄의 매실열매로 신맛은 많고 단맛은 적은데 다른 것 모두 甘味는 많고 酸味는 적다. 그러므로 소아의 味를 조절할 때는 甘味는 많고 酸味는 적게 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錢仲陽<sup>3)</sup>의 六味丸이 이것이다. 苦寒한 약물을 가볍게 사용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불꽃이 올라서 쓴맛이 되며 만물은 불을 보면 변화하며 苦味는 滲濕할 수 있다. 사람은 비늘 없는 동물로 濕土에 속하니 濕이 지나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濕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濕이 重한 자는 뚱뚱하고 濕이 적은 자는 야윈다. 소아의 濕을 다 滲濕할 수 있겠는가! 用藥에 있어서는 瀉火를 생각하지만 瀉하면 할수록 더욱 마르고 변화하면 할수록 더욱 건조해지는 것을 모른다. 苦味는 먼저 心으로 들어가서 燥氣로 변화하는데다 胃汁을 심하게 치니 竅장 癆厥을 일으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 소아의 火는 오로지 壯火만을 제거해야 하며 少火는 살 수 있도록 의지해야 하는 것이니<sup>4)</sup> 어찌 제멋대로 苦寒한 약을 써서 식힐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存陰退熱하는 것을 제일의 방법으로 삼는데 存陰退熱하는 데에는 酸甘化陰하는 六味 이상의 것은 없다. 오직 濕溫門중에 辛淡한 약물과 함께 사용하는데 燥火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나는 앞에서 溫熱을 서술할 때에 비록 大人이라 할지라도 무릇 苦

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3.

錢乙을 말함. 北宋의 저명한 소아과 醫家. 字는 仲陽. 60년간 소아과를 專業하여 풍부한 臨床經驗을 쌓았다. 저서로는 『小兒藥證直訣』이 있다.

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1卷). 大邱. 金星印刷社. 2001. p.182.

“壯火之氣衰，少火之氣壯，壯火食氣，氣食少火，壯火散氣，少火生氣”

2)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1卷). 大邱. 金星印刷社. 2001. pp.11-19.

寒한 약을 사용할 때에 반드시 甘寒한 약물을 많이 사용하여 살폈으나 오로지 酒客은 禁하지 않는다.

【考察】

소아는 純陽이지 盛陽은 아니니 苦寒한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苦寒한 약물을 사용하면 生長발육하는 氣를 吐버리게 된다. 苦寒한 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아이는 진액이 모자라서 몸이 갈수록 건조해진다. 治法은 陰을 보존시키면서 熱을 물리치는 방법을 사용한다. 소아를 氣味로 따지자면 酸甘味에 속하니 酸甘化陰하는 六味地黃丸을 사용한다. 비록 성인 일지라도 苦寒한 약물을 사용할 때에는 甘寒한 약물을 많이 써서 사용하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苦寒한 약물로 濕熱을 다스려 주어야 한다.

### 5. 兒科風藥禁

【原文】

近日行方脈者， 無論四時所感為何氣， 一概羌， 防， 柴， 葛， 不知仲景先師， 有風家禁汗， 亡血家禁汗， 濕家禁汗， 瘡家禁汗四條， 皆為其血虛致瘡也。 然則小兒瘡病， 多半為醫所造， 皆不識六氣之故。

【解釋】

요즘에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四時에 어느 氣에 感受받았는지를 막론하고 一률적으로 羌活, 防風, 柴胡, 葛根 등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張仲景이 風家에 禁汗시키고 亡血家에 禁汗시키고 濕家에 禁汗시키고 瘡家에 禁汗시킨 네 가지 조문<sup>5)</sup>의 이유가 모두 血虛에 의해 瘡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소아의 瘡病은 대부분 의사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모두 六氣를 알지 못한 까닭이다.

【考察】

본 論은 소아과 질환에 發汗法을 一률적으로 제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張仲景의 조문을 예로 들어 發汗을 시키면 血이 손상을 받고 血이 손상이 되면 瘡病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소아과 질환에서도 辛溫解表하는 風藥을 많이 사용하면 대부분 血이 손상되어 瘡病이 발생하게 된다. 본 論에서의 瘡家는 瘡瘍이 오래된 환자를 말한다<sup>6)</sup>. 瘡瘍이 오래되면 氣血이 다 손상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發汗을 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瘡證초기에는 무조건 發汗을 금해야 할 것이 아니라 表邪가 있을 때 發汗을 시켜서 解表시키는 경우도 있다.<sup>7)</sup>

### 6. 瘡因質疑

【原文】

瘡病之因， 『素問』曰：“諸瘡項強， 皆屬於濕”。 此濕字， 大有可疑， 蓋風字誤傳為濕字也。 余少讀方中行先生『瘡書』， 一生治病， 留心瘡証， 覺六氣皆能致瘡。 風為百病之長， 六氣莫不由風而傷人， 所有瘡病現証， 皆風木剛強屈伸<sup>1)</sup>之象。 濕性下行而柔， 木性上行而剛； 單一濕字， 似難包得諸瘡。 且濕字與項強字即不對， 中行『瘡書』一十八條， 除引『素問』『千金』二條， 余十六條內， 脈二條， 証十四條， 俱無濕字証據。 如脈二條： 一曰： 夫瘡脈按之繁如弦， 直上下行； 二曰： 『脈經』云： 瘡家， 其脈伏堅， 直上下。 皆風木之象， 濕之反面也。 余十四條： 風寒致瘡居其十， 風家禁下一條， 瘡家禁汗一條， 新產亡血二條， 皆無所謂濕也者。 即『千金』一條， 曰： 太陽中風， 重感於寒， 濕則變瘡也。 上下文義不續， 亦不可以為據。 中行注云： 瘡， 自『素問』以來， 其見於『傷寒論』者， 乃叔和所述『金匱』之略也； 『千金』雖有此言， 未見其精悉。 可見中行亦疑之。 且『千金』一書， 雜亂無章， 多有後人屬雜<sup>2)</sup>， 難以為據。 『靈樞』『素問』二書， 非神聖不能道， 然多述於戰國漢人之筆， 可信者十之八， 九， 其不可信者一， 二； 如其中多有後世官名地名， 豈軒岐逆料後世之語， 而先言之哉？ 且代遠年湮， 不無脫簡錯

5)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p.106-111.

咽喉乾燥者， 不可發汗。 淋家， 不可發汗， 發汗必便血。 瘡家， 雖身疼痛， 不可發汗， 汗出則瘡。 衄家， 不可發汗， 汗出必額上陷， 脈急緊， 直視不能胸， 不得眠。 亡血家， 不可發汗， 發汗則寒慄而振。 風家과 濕家에 대한 내용은 없다.

6)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109.

7) 顧伯康 主編.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49.

誤之處。瑠學術淺陋，不敢信此濕字，亦不敢直斷其非，闕疑以俟來者。

汪按：古書甚少，除朝廷史志外，其餘學術，皆師弟以口耳相傳，至戰國時始著之竹帛，如『內經』等書，後人或以為岐黃自作，或以後人僞托，皆非也。

#### 【字句解】

(1) 屈伸： 구부러지거나 뒤틀림.

(2) 屬雜： 뒤섞다. 혼합하다.

#### 【解釋】

瘧病的 원인을 『素問』에서는 “諸瘧項強，皆屬於濕<sup>8)</sup>(모든 瘧과 項強은 모두 습에 속한다)”이라 하였다. 이 濕이라는 글자는 아주 의심스러운데 대개 風字를 濕字로 잘못 전한 것 같다. 나는 어려서 方中行 선생의 『瘧書』를 읽고 일생을 病을 치료하면서 瘧病에 가졌으며 六氣가 모두 瘧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꼈다. 風은 모든 病의 우두머리이고 六氣는 風을 따라서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은 것이 없으며 瘧病의 나타나는 증은 모두 風木의 강직하고 구부러지거나 뒤틀리는 형상이다. 濕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드러운 木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면서 강하니 濕이란 한 글자로 모든 瘧을 포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濕字는 項強과 어울리지 않는데 方中行的 『瘧書』18조에 『素問』과 『千金』 두 조를 빼고 나머지 16조문 속에 脈 2조, 證 14조가 있는데 모두 濕字란 증거가 없다. 예를 들어 脈 두 조문에, 하나는 무릇 瘧의 맥은 누르면 弦처럼 緊한 것이 곧장 위아래로 행한다고 하였으며, 또 하나는 『脈經』에 이르기를 瘧家は 그 맥이 伏堅한 것이 위아래가 뻗뻗하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風木의 형상이며 濕과는 상반되는 일이다. 나머지 14개 조문은 風寒이 瘧을 일으킨 것이 10개, 風家에 下法을 금하는 것이 1개, 瘡家에 禁汗 한 것이 1개, 產後 亡血이 2개조로 모두 濕을 말하는 것은 없다. 『千金』이란 1개 조문에 말하기를 太陽中風으로 寒과 濕에 거듭 感受되면 瘧으로 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뒤 문장이 이어지지 않으니 근거로 삼을 수 없다. 方中行이 注에 이르기를 瘧은 『素

問』이래로 『傷寒論』에 나타나는데, 이는 곧 王叔和가 『金匱要略』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며 『千金』에는 비록 이 말이 있었지만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方中行 또한 이를 의심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千金』은 번잡하고 조리가 없으며 대부분 후대 사람들이 뒤섞어 놓은 것도 많아서 근거로 삼기가 어렵다. 『靈樞』와 『素問』은 성현이 아니면 말할 수 없으나 대부분 戰國時代나 漢나라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 저술되었기 때문에 심중팔구는 믿을 만한 것이고 심중일이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그 중 후세의 관직명이나 지명이 많이 있는데 어찌 黃帝와 岐伯이 후세의 말을 미리 예측해서 먼저 말했겠는가? 게다가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서 脫簡되거나 錯謬가 있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 吳瑭인 나의 학술이 천박해서 감히 이 濕字를 믿지 못하고 또한 그 잘못을 과감하게 단언하지 못하니 의심스러운 부분은 남겨서 후학들이 연구하기를 바란다.

汪按：古書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朝廷의 역사기록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學術은 모두 스승과 제자가 입과 귀를 통해 서로 전해지다가 戰國시대에 대나무나 비단에 저술하기 시작하였는데, 『內經』같은 책을 후인들이 岐伯과 黃帝에 의해 지어졌다고도 하고 혹자는 후인들에 의해 委託된 것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틀린 말이다.

#### 【考察】

六淫의 邪氣의 성질에 비추어볼 때 吳鞠通은 『素問』의 “諸瘧項強，皆屬於濕”이란 말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 瘧病은 강직하고 구부러지거나 뒤틀리는 형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드러운 성질을 지닌 濕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吳鞠通은 연구를 시작한다. 方中行的 『瘧書』란 책에 비추어 보건데 『素問』, 『千金方』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濕이 瘧病의 원인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千金方』과 관련한 1개 조문에서는 濕이란 말을 거론하지는 하나 앞뒤 문장이 전혀 논리에 맞질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 『素問』의 “諸瘧項強，皆屬於濕”이란 문장이 脫簡이나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하고 의심을 해본다. 吳鞠通의 수준에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후학들에게 연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8)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9卷). 大邱. 金星印刷社. 2001. p.544.  
“諸瘧項強 皆屬於濕”

## 7. 濕痺或問

### 【原文】

或問子疑『素問』痺因於濕，而又謂六淫之邪皆能致痺，亦復有濕痺一條，豈不自相矛盾乎？曰：吾所疑者諸字皆字，似濕之一字，不能包括諸痺，惟風可以該括，一也；再者濕性柔，不能致強，初起之濕痺，必兼風而後成也。且俗名痺為驚風，原有急慢二條。所謂急者，一感即痺，先痺而後病；所謂慢者，病久而致痺者也。一感即痺者，只要認證真，用藥確，一二帖即愈，易治也。病久而痺者，非傷脾陽，肝木來乘；即傷胃汁肝陰，肝風鳴張<sup>(1)</sup>，一虛寒，一虛熱，為難治也。吾見濕因致痺，先病後痺者多，如夏月小兒暑濕泄瀉暴注，一晝夜百數十行，下多亡陰，肝乘致痺之類，霍亂最能致痺，皆先病後痺者也。當合之雜說中『風論』一條參看。以卒得痺病而論，風為百病之長，六淫之邪，皆因風而入。以久病致痺而論，其強直背反癱瘓<sup>(2)</sup>之狀，皆肝風內動為之也。似風之一字，可以包得諸痺。要知痺者筋病也，知痺之為筋病，思過半矣。

### 【字句解】

(1) 鳴張：(올빼미가 날개를 활짝 편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방자하다.

(2) 癱瘓：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오그라들거나 늘어지는 증상이 번갈아 나면서 오랫동안 되풀이 되는 증.

### 【解釋】

혹시라도 물어 보건데 당신이 『素問』에서 痺病의 원인이 濕에 있다고 한 것<sup>9)</sup>을 의심하면서, 또 六淫의 邪氣가 모두 痺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濕痺이란 한 조문이 있으니<sup>10)</sup> 어찌 서로 모순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의심하는 바는 諸字와 皆字이며 濕이란 한 자로는 모든 痺을 포괄할 수 없고 오직 風만이 포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濕의 성질은 부드러워서 뻣뻣해지

는 증상을 일으킬 수 없으니 초기의 濕痺은 반드시 風을 겸한 후에 이루어진다. 게다가 속세에서 痺을 驚風이라고 하는데 원래 急驚風과 慢驚風의 두 가지가 있다. 소위 急이라는 것은 일단 感受받으면 痺이 곧 발생하는데 먼저 痺이 나타난 후에 다른 病이 나타나며, 소위 慢이라는 것은 病이 오래되어 痺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단 感受받는 즉시 곧 痺이 되는 것은 단지 병증을 인식하는 것이 뚜렷하고 用藥이 확실하면 한두 첩으로 나오니 치료하기가 쉽다. 病이 오래되어 痺이 되는 것은 脾陽이 손상되어 肝木이 乘한 것이 아니면 胃汁과 肝陰이 손상되어 肝風이 치성한 것으로, 하나는 虛寒이고 하나는 虛熱이니 치료하기가 어렵다. 나는 濕이 원인인 痺病은 먼저 다른 病을 앓은 후에 痺이 발생한 것을 많이 보았는데, 예를 들어 여름에 소아가 暑濕으로 설사를 폭주하기를 하루에 백 수십 차례나 하였는데 설사를 많이 하여 亡陰이 되어 肝이 乘해서 일으킨 痺의 부류이며, 霍亂도 痺을 잘 일으킬 수 있으니, 모두 먼저 다른 病을 앓은 후에 痺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의 雜說편중의 『風論』한 조문을 함께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 갑자기 얻은 痺病을 논하자면 風은 모든 病의 우두머리이고 六淫의 邪氣는 모두 風으로부터 온다. 病이 오래되어 발생한 痺病을 논하자면, 頸項強直, 角弓反張, 癱瘓 등의 증상은 모두 肝風이 內動해서 생긴 것이다. 風이란 한 글자는 모든 痺을 포괄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컨대 痺이라는 것은 筋病이니, 痺이 筋病임을 안다면 이미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보면 된다.

### 【考察】

六淫의 邪氣가 모두 痺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痺病이 濕때문에 생겼다고 한 내용을 보면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濕은 성질이 부드러워서 뻣뻣해지는 증상을 일으킬 수 없으니 痺病의 초기에 濕은 風과 함께 인체를 침범해야 만이 痺病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吳鞠通의 생각이다. 그래서 濕이 痺病을 일으키려면 濕이 風과 함께 겸해야 한다. 痺은 驚風을 말하는 것으로 驚風에는 急驚風과 慢驚風의 두 가지가 있다. 急驚風은 邪氣에 感受받아서 바로 생기는 것으로 風邪와 다른 邪氣가 함께 침범하며 쉽게 치료가 된다. 慢驚風은 病이 오래

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9卷). 大邱. 金星印刷社. 2001. p.544.

“諸痺項強 皆屬於濕”

10) 吳瑭.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95. 小兒痺病總病共有九大講論에 濕痺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脾陽이 虛함으로 인해 肝이 乘해서 생기는 것과 陰虛로 인해 肝風이 內動해서 생기는 것 두 가지가 있으며 치료하기가 어렵다.

## 8. 瘧有寒熱虛實四大綱論

### 【原文】

六淫致瘧，實証也；產婦亡血，病久致瘧，風家誤下，溫病誤汗，瘡家發汗者，虛瘧也。風寒，風濕致瘧者，寒証也；風溫，風熱，風暑，燥火致瘧者，熱瘧也(按此皆瘧証屬火，後世統謂之瘧矣，後另有論)。俗稱慢脾風<sup>(1)</sup>者，虛寒瘧也；本論後述本臟自病<sup>(2)</sup>者，虛熱瘧也(亦系瘧証)

### 【字句解】

(1)慢脾風：慢驚風의 하나. 만경풍이 더 중해진 것이다. 구토, 설사가 오랫동안 계속되며 脾가 虛寒해져서 생긴다.

(2)本臟自病：달리 虛熱瘧이라고도 부름. 小兒 瘧病의 하나. 溫熱病 후기에 땀을 많이 흘렸거나 血을 상하여 생긴다.

### 【解釋】

六淫이 瘧을 일으킨 것은 實證이고 產後의 亡血과 病이 오래되어 일으킨 瘧이나 風家에 下法을 잘못 쓴 경우, 溫病에 汗法을 잘못 쓴 경우, 瘡家에 發汗을 한 경우는 모두 虛瘧이다. 風寒과 風濕이 瘧을 일으킨 것은 寒證이고, 風溫, 風熱, 風暑, 燥火가 일으킨 瘧은 熱瘧이다.(살펴 보건데 이것은 모두 火에 속한 瘧證으로 후세에 瘧이라고 통칭하였으며 뒤에 별도로 논술함) 속세에서 慢脾風이라고 하는 것은 虛寒瘧이고 본 論의 뒤에서 서술한 本臟自病이라는 것은 虛熱瘧이다.(또한 瘧證에 속함)

### 【考察】

本 論은 小兒瘧病의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瘧은 크게 實瘧, 虛瘧, 熱瘧, 寒瘧 등 4개로 나눈다. 實瘧은 六淫의 外邪가 일으킨 것이다. 虛瘧은 汗下法을 誤治함으로 인해 陰液이 손상되어서 일어난 것이다. 寒瘧은 風寒과 風濕이 일으킨 것이다. 熱瘧은 風溫, 風熱, 風暑, 燥火가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慢脾風은 脾腎陽虛로 인해 일어나 것이기 때문에 虛寒瘧에 속

하고 本臟自病은 陰血이나 津액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虛熱瘧에 속한다.

## 9. 小兒瘧病瘧病共有九大綱論

### 【原文】

#### 寒瘧

仲景先師所述方法具在，但須對証細加尋繹，如所云太陽証體強，几几然，脈沉遲之類，有汗為柔瘧，為風多寒少，而用桂枝湯加法；無汗為剛瘧，為寒瘧，而用葛根湯，湯內有麻黃，乃不以桂枝立名，亦不以麻黃立名者，以其病已至陽明也。諸如此類，須平時熟讀其書，臨時再加謹慎，手下自有準的矣。

風寒咳嗽致瘧者，用杏蘇散辛溫例，自當附入寒門。

風溫瘧(按此即瘧證，少陽之氣為之也，下溫熱，暑溫，秋燥，皆同此例)

乃風之正令，陽氣發泄之候，君火主氣之時，宜用辛涼正法。輕者用辛涼輕劑，重者用辛涼重劑，如本論上焦篇銀翹散，白虎湯之類；傷津液者加甘涼，如銀翹加生地，麥冬，玉女煎以白虎合冬，地之類；神昏譫語，兼用芳香以開膈中，如清營湯，牛黃丸，紫雪丹之類；愈後用六味，三才，復脈輩，以復其喪失之津液。

風溫咳嗽致瘧者，用桑菊飲(方見上焦篇)，銀翹散辛涼例，與風寒咳嗽迥別<sup>(1)</sup>，斷不可一概用杏蘇辛溫也。

溫熱瘧(即六淫之火氣，消鑠真陰者也，『內經』謂先夏至為病溫者是也)

即同上風溫論治。但風溫之病瘧者輕而少，溫熱之致瘧者多而重也。約之輕重淺深，視病之輕重淺深而已。

暑瘧(暑兼濕熱，後有濕瘧一條，此則偏於熱多濕少之病，去溫熱不遠，經謂後夏至為病暑者是也)

按俗名小兒急驚風者，惟暑月最多，而兼証最雜，非心如澄潭，目如智珠，筆如分水犀者，未易辨此。蓋小兒膚薄神怯，經絡臟腑嫩小，不奈三氣發泄。邪之來也，勢如奔馬，其傳變也，急如掣電，豈粗疏者所能當此任哉！如夏月小兒身熱頭痛，項強無汗，此暑兼風寒者也，宜新加香薷飲；有汗則仍用銀翹散，重加桑葉；咳嗽則用

桑菊飲；汗多則用白虎；脈扎而喘，則用人參白虎；身重汗少，則用蒼朮白虎；脈扎面赤多言，喘喝欲脫者，即用生脈散；神識不清者，即用清營東加鉤藤，丹皮，羚羊角；神昏者，兼用紫雪丹，牛黃丸等；病熱輕微者，用清絡飲之類，方法悉載上焦篇，學人當與前三焦篇暑門中細心求之。但分量或用四之一，或用四之二，量兒之壯弱大小加減之。瘧因於暑，只治致瘧之因，而瘧自止，不必沾沾但於瘧中求之。若執瘧以求瘧，吾不知瘧為何物。夫瘧病名也，頭痛亦病名也。善治頭痛者必問致頭痛之因，蓋頭痛有傷寒頭痛，傷風頭痛，暑頭痛，熱頭痛，濕頭痛，燥頭痛，痰厥頭痛，陽虛頭痛，陰虛頭痛，跌撲頭痛，心火欲作癰腫之頭痛，肝風內動上竄少陽膽絡之偏頭痛，朝發暮死之真頭痛，若不問其致病之因，如時人但見頭痛，一以羌活，藁本從事，何頭痛之能愈哉！況瘧病之難治者乎！

濕瘧(按此一節，瘧瘧兼有，其因於寒濕者，則兼太陽寒水氣，其泄瀉太甚，下多亡陰者，木氣來乘，則瘧矣)

按中濕即瘧者少，蓋濕性柔而下行，不似風剛而上升也。其間有兼風之瘧，『名醫類案』中有一條云：“小兒吐欲作癰者，五苓散最妙”；本論濕溫上焦篇，有三仁湯一法；邪入心包，用清宮湯去蓮心，麥冬，加銀花赤小豆皮一法；用紫雪丹一法；銀翹馬勃散一法；千金葶藶湯加滑石，杏仁一法；而寒濕例中，有形似傷寒，舌白不渴，經絡拘急，桂枝姜附湯一法。凡此非必皆現瘧病而後治。

蓋既感外邪，久則致瘧，於其未瘧之先，知系感受何邪，以法治之，而瘧病之源絕矣，豈不愈於見瘧治瘧哉！若兒科能於六淫之邪，見幾於早，吾知小兒之瘧病必少。濕久致瘧者多，蓋濕為濁邪，最善彌漫三焦，上蔽清竅，內蒙腫中，學人當於前中焦下焦篇中求之。由瘧痢而致瘧者，見其所傷之偏陰偏陽而補救之，於瘧痢門中求之。

#### 燥瘧

燥氣化火，消鑠津液，亦能致瘧，其治略似風溫，學人當於本論前三焦篇秋燥門中求之。但正秋之時，有伏暑內發，新涼外加之証，燥者宜辛涼甘潤，有伏暑則兼濕矣，兼濕則宜苦辛淡，甚則苦辛寒矣，不可不細加察焉。燥氣化寒，脅痛嘔吐，法用苦溫，佐以甘辛。

內傷飲食瘧(俗所謂慢脾風者是也)

按此証必先由於吐瀉，有脾胃兩傷者，有專傷脾陽者，有專傷胃陽者，有傷及腎陽者，參苓白朮散，四君，六君，異功，補中益氣，理中等湯，皆可選用。虛寒甚者，理中加丁香，肉桂，肉果<sup>(2)</sup>，訶子之類，因他病傷寒涼藥者，亦同此例。葉案中有陰風入脾絡一條，方在小兒癰瘧厥門中，其小兒吐瀉門中，言此証最為詳細。案後華岫雲駁俗論最妙，學人不可不靜心體察焉！再參之錢仲陽，薛立齋，李東垣，張景岳諸家，可無余蘊矣。再按此証最險，最為難治，世之訛傳妄治已久，四海同風，歷有年所<sup>(3)</sup>，方中行駁之於前，諸君子暢論於後。至今日而其偽風不息，是所望於後之強有力者，悉取其偽書而焚耳。細觀葉案治法之妙，全在見吐瀉時，先防其瘧，非於既瘧而後設法也。故余前治六淫之瘧，亦同此法，所謂上工不治已病治未病。聖人不治已亂治未亂也。

客忤瘧<sup>(4)</sup>(俗稱謂驚嚇是也)

按小兒神怯氣弱，或見非常之物，聽非常之響，或失足落空，跌撲之類，百証中或有一，二，非小兒所有瘧病，皆因於驚嚇也。証現發熱，或有汗，或無汗，面時青時赤，夢中囁語，手足蠕動，宜復脈湯去參，桂，姜，棗，加丹參，丹皮，犀角，補心之體，以配心之用。大便結者，加元參，漚者加牡蠣；汗多神不寧有恐懼之象者，加龍骨，整琥珀，整朱砂塊(取其氣而不用其質，自無流弊)，必細詢病家確有所見者，方用此例。若語涉支離<sup>(5)</sup>，猜疑不定者，靜心再診，必得確情，而後用藥。

愚兒三歲，六月初九日辰時，倚門落空，少時發熱，隨熱隨瘧，昏不知人，手足如冰，無脈，至戌時而瘧止，身熱神昏無汗；次日早，余方與復脈湯去參，桂，姜，棗，每日一帖，服三，四杯。不飲不食，至十四日巳時，得戰汗而愈。若當瘧厥神昏之際，妄動亂治，豈有生理乎！蓋瘧厥則陰陽逆亂，少不合拍則不可救，病家情急，因亂投藥餌，胡針亂灸而死者，不可勝紀。病家中無主宰，醫者又無主宰，兒病其何堪哉！如包絡熱重，唇舌燥，目白睛有赤縷者，牛黃清心丸，本論牛黃安宮丸，紫雪丹輩，亦可酌而用之。

汪按：世妄傳驚風之証，惟此一證，乃副其名。其因風因熱等項之驚，神氣昏憤，往往對面擊鼓放銃，全然不知；客忤之証，則神驚膽怯，畏見異言異服，極易分別

也。又按此證心氣素虛者，復脈中須仍用人參。

#### 本臟自病瘧(此証則瘧病也)

按此證由於平日兒之父母，恐兒之受寒，復被過多，著衣過濃，或冬日房屋熱炕過暖，以致小兒每日出汗，汗多亡血，亦如產婦亡血致瘧一理。肝主血，肝以血為自養，血足則柔，血虛則強，故曰本臟自病。然此一瘧也，又實為六淫致瘧之根；蓋汗多亡血者，本臟自病，汗多亡衛外之陽，則易感六淫之邪也。全賴明醫參透此理，於平日預先告諭小兒之父母，勿令過暖汗多亡血，暗中少卻無窮之病矣，所謂治未病也。治本臟自病法，一以育陰柔肝為主，即同產後血亡致瘧一例，所謂血足風自滅也。六味丸，復脈湯，三甲復脈三方，大小定風珠二方，專翕膏，皆可選用。專翕膏為瘧止後，每日服四，五錢，分二次，為填陰善後計也。六淫誤汗致瘧者，亦同此例。救風溫，溫熱誤汗者，先與存陰，不比傷寒誤汗者急與護陽也，蓋寒病不足在陽，溫病不足在陰也。

徵按：瘧證有五，乃督脈病也。秦越人『難經』，督脈為病，脊強而厥；張仲景『金匱』，脊強者，五瘧之總名，其證卒口噤，背反張而瘧。此段重重細說，可以補仲景之未備。

#### 【字句解】

(1) 迥別： 아주 다르다. 판이하다.

(2) 肉果： 肉豆蔻의 판 이름.

(3) 歷有年所： 긴 세월이 지나가다.

(4) 客忤瘧： 소아瘧病의 하나. 神氣가 부족할 때 놀라서 생긴다. 열이 나고 간혹 땀이 나거나 나지 않으며 얼굴은 피레졌다 벌게졌다 하고 잠꼬대하며 손발을 떨기도 한다.

(5) 支離： 조리가 없다.

#### 【解釋】

##### 寒瘧

張仲景이 서술한 방법은 이미 구체적이나 단 證에 대해 세심하게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太陽證은 體가 강직되고 움츠리며 脈은 沈遲한 것<sup>11)</sup>을 말하는데, 땀이 있는 것을 柔瘧이라고 하며 風은 많

고 寒은 적으니 桂枝湯加減法<sup>12)</sup>을 사용하며, 땀이 없으면 強瘧이라 하고 寒瘧에 속하니 葛根湯<sup>13)</sup>을 사용하며, 탕 속에 麻黃이 있는데 여전히 桂枝로 이름을 세우지 않고 또한 麻黃으로 이름을 세우지 않는 것은 그 病이 이미 陽明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두 이와 같이 하여 평소에 책을 숙독하여 때에 이르러서 신중히 한다면 일을 처리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생길 것이다.

風寒咳嗽가 일으킨 瘧은 杏蘇散같은 辛溫한 예를 사용하니 당연히 寒門에 넣는다.

風溫瘧(살펴 보건데 이는 總證으로 少陽의 氣가 일으킨 것이니 아래의 溫熱, 暑濕, 秋燥는 모두 이 예와 같다)

風氣가 사령하는 시기에 陽氣가 發泄할 때와 君火가 氣를 주관할 때에는 마땅히 辛涼正法을 사용한다. 가벼운 것은 辛涼輕劑를 사용하고 重한 것은 辛涼重劑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본 책의 上焦篇의 銀翹散<sup>14)</sup>과 白虎湯<sup>15)</sup>의 부류이다. 津液을 손상한 경우에는 甘涼한 약물을 가하는데 예를 들면 銀翹散에 生地黃과 麥門冬을 가하고 白虎湯에 麥門冬과 生地黃을 가한 玉女煎의 부류<sup>16)</sup>이다. 神昏譫語에는 膈中을 여는 芳香藥을 검용하는데 예를 들면 清營湯<sup>17)</sup>, 牛黃

12)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55, 59.

“太陽病. 發熱汗出. 而不惡寒. 名曰柔瘧.” “太陽病. 其證備. 身體強几几然. 脈反沈遲. 此爲瘧. 瓜蒌桂枝湯主之.”

13)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59.

“太陽病. 無汗而小便反少. 氣上衝胸. 口噤不得語. 欲作剛瘧. 葛根湯主之.”

14) 吳瑭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6.

“上焦篇, 辛涼平劑銀翹散方, 連翹一兩, 銀花一兩, 苦桔梗六錢, 薄荷六錢, 竹葉四錢, 生甘草五錢, 芥穗四錢, 淡豆豉五錢, 牛蒡子六錢.”

15) 吳瑭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9.

“上焦篇, 辛涼重劑白虎湯方: 生石膏(研)一兩,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16) 吳瑭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04.

“上焦篇, 玉女煎去牛膝熟地加細生地元參方: 生石膏一兩, 知母四錢, 元參四錢, 細生地六錢, 麥冬六錢.”

17) 吳瑭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

“上焦篇 清營湯方: 元參心三錢, 蓮子心五分, 竹葉卷心二錢, 連翹心二錢, 犀角尖(磨沖)二錢, 連心麥冬三錢.”

11)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59.

“太陽病. 其證備. 身體強几几然. 脈反沈遲. 此爲瘧. 瓜蒌桂枝湯主之.”

丸<sup>18</sup>), 紫雪丹<sup>19</sup>)의 부류이다. 나온 후에는 六味地黃丸, 三才湯, 復脈湯류를 사용하여 손상된 진액을 회복시킨다.

風溫咳嗽이 일으킨 瘧에 辛涼한 약물인 桑菊飲(처방은 上焦篇에 나옴), 銀翹散을 사용하는데 風寒咳嗽와는 아주 다르니 절대로 일률적으로 辛溫한 杏蘇散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溫熱瘧(六淫의 火氣가 眞陰을 태운 것으로 『內經』에서 “先夏至爲病溫”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위의 風溫論과 함께 치료한다. 다만 風溫의 瘧은 가벼우면서도 드물고 溫熱의 瘧은 많으면서도 重하다. 藥의 輕重과 深淺은 病의 輕重과 深淺을 살필 뿐이다.

暑瘧(暑는 濕熱을 겸하는데 뒤에 濕瘧의 한 조문이 있으며 여기서는 熱이 많고 濕이 적은 病에 치우친 것으로 溫熱과는 멀지 않다. 『內經』에 “後夏至爲病暑”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살펴 보건데 속칭 小兒急驚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暑月에 가장 많으며 證을 겸하는 것도 아주 복잡하고 마음이 연못과 같고 눈이 진주와 같으며 붓은 물소뿔을 자르는 것같이 하지 않으면 이를 辨證하기는 쉽지 않다. 대개 소아의 肌膚는 薄弱하고 神怯하며 經絡과 臟腑는 어려서 三氣를 發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邪氣가 들어오는 것은 형세가 달리는 말과 같으며 그 傳變은 전광석화 같이 빠르니 어찌 세심하지 않은 자가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소아의 身熱과 頭痛, 項強과 無汗은 暑에 風寒을 겸한 것으로 新加香薷飲이 마땅하며 汗이 있으면 여전히 銀翹散을 사용하고 桑葉을 重用하여 加한다. 기침에는 桑菊飲을 加하고 汗이 많으면 白虎湯을 사용하고 脈이 扪하고 喘증이 있으면 人蔘白虎湯

을 사용하고 脉이 무겁고 汗이 적으면 蒼朮白虎湯을 사용하고 脈이 扪하고 얼굴이 붉고 말이 많으며 喘渴하고 欲脫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生脈散을 사용하고 정신이 흐릿한 경우에는 清營湯에 鉤藤, 牡丹皮, 羚羊角을 加하고 정신이 혼미한 경우에는 紫雪丹과 牛黃丸 등을 兼용하고 熱이 輕微한 경우에는 清絡飲의 부류를 사용하며 방법은 모두 上焦篇에 실었으니 배우는 자는 앞의 三焦篇의 暑門중에서 세심하게 구해야 한다. 다만 分量은 四分의 一을 사용하거나 四分의 二를 사용하여 소아의 신체의 강약과 나이의 대소에 따라 加減한다. 瘧의 원인이 暑에 있는 것은 단지 瘧을 일으킨 원인을 치료하면 瘧은 저절로 그치며 반드시 瘧중에서 구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瘧에 짐착해서 瘧을 구한다면 瘧이 어떤 물건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무릇 瘧은 病名이며 頭痛 또한 病名이다. 頭痛을 잘 치료하는 자는 반드시 頭痛을 일으키는 원인을 물어보는데 대개 頭痛에는 傷寒頭痛, 傷風頭痛, 暑頭痛, 熱頭痛, 濕頭痛, 燥頭痛, 痰厥頭痛, 陽虛頭痛, 陰虛頭痛, 跌撲頭痛, 心火가 癰膿을 만들고자 하는 頭痛, 肝風內動으로 少陽膽絡을 친 偏頭痛, 아침에 발작하고 저녁에 사라지는 眞頭痛 등이 있는데 만약에 病을 일으키는 원인을 묻지 않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頭痛을 보고서 일률적으로 羌活과 藁本으로 宗사한다면 어찌 頭痛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물며 瘧病처럼 치료하기가 어려운 病에 있어서야!

濕瘧(살펴 보건데 이조문은 瘧와 瘧을 겸한 것으로 寒濕에 원인이 있는 것은 太陽寒水의 기운을 겸하고 설사가 아주 심하여 설사를 많이 하여 亡陰한 것은 木氣가 乘하면 瘧가 된다)

살펴 보건데 濕邪에 感受받아서 瘧이 되는 것은 드물며 대개 濕의 성질은 부드럽고 下行하여 風이 뻗뻗하여 상승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 중에 風을 끼고 나타나는 瘧이 있는데 『名醫類案』중의 한 조문에 “소아가 疳積을 토하고 간질이 발작하려고 하는 때에는 五苓散이 가장 좋다.”고 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上焦篇의 濕溫門에 三仁湯이 하나 있고 邪氣가 心包로 들어가면 清營湯에 蓮心과 麥門冬을 去하고 銀花와 赤小豆皮를 加한 것을 사용한 법이 하나 있으

18) 吳瑭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6. “上焦篇, 牛黃丸方: 牛黃一兩, 鬱金一兩, 犀角一兩, 黃連一兩, 朱砂一兩, 梅片二錢五分, 麝香二錢五分, 眞珠五錢, 山梔一兩, 雄黃一兩, 金箔衣, 黃芩一兩”  
19) 吳瑭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7. “上焦篇 紫雪丹方: 滑石一斤, 石膏一斤, 寒水石一斤, 磁石水煮二斤, 搗煎去渣入後藥, 羚羊角五兩, 木香五兩, 犀角五兩, 沈香五兩, 丁香一兩, 升麻一斤, 元蔘一斤, 炙甘草半斤.”

며, 紫雪丹을 사용한 법이 하나 있으며, 銀翹馬勃散을 사용한 법이 하나 있으며, 千金葦莖湯에 滑石과 杏仁을 가한 법이 하나 있으며, 寒濕門중에 형태가 傷寒과 비슷하고 舌苔가 하얗고 갈증이 없으며 經絡이 拘急한 경우에는 桂枝薑附湯을 사용한 법이 있으니 무릇 이것은 모두 瘧病이 나타난 후에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外邪에 感受받은 이상 오래되면 瘧을 일으키고 瘧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어느 邪氣에 感受받을지를 알고서 법대로 치료하면 瘧病의 근원이 끊어질 것이니 어찌 瘧病이 나타난 후에 瘧을 치료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만약 소아과에서 六淫의 邪氣에 대해 일찍 알아챈다면 소아의 瘧病이 반드시 드물 것을 안다. 溫邪가 오래되어 瘧을 일으킨 경우는 많으니 대개 濕은 濁邪로서 三焦에 가장 잘 퍼져서 위로는 清竅를 막고 안으로는 膈中을 막아서 배우는 자가 앞의 中焦와 下焦편에서 구해야 한다. 瘧病이 瘧을 일으킨 경우에는 손상된 巴의 偏陰과 偏陽을 보고서 보하여 구하는데 瘧疾과 痢疾門에서 구한다.

#### 燥瘧

燥氣가 火로 변하여 진액을 태우는 것 또한 瘧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치료는 대략 風溫과 같으니 배우는 자는 본 책의 앞의 三焦篇 秋燥門에서 구해야 한다. 다만 한가을에 伏暑가 안에서 나타나고 밖에서 서늘한 氣가 더해지는 증이 있으니 燥라는 것은 辛涼 甘潤하여야 하며, 伏暑에 溫을 겸하는데 濕을 겸하는 경우에는 苦辛淡한 약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심하면 苦辛寒한 약물을 사용하여야 하니 세심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다. 燥氣가 寒으로 변하면 脇痛과 嘔吐를 하는데 治法은 苦溫을 사용하여야 하고 甘辛으로 보좌한다.

內傷飲食瘧(속세에 慢脾風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살펴 보건데 이 증은 반드시 吐瀉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脾胃가 모두 손상된 경우가 있고 脾陽만 손상된 경우가 있고 胃陽만 손상된 경우가 있고 腎陽까지 손상된 경우가 있는데, 藜苓白朮散, 四君子湯, 六君子湯, 異功散, 補中益氣湯, 理中湯 등에서 모두 선택해

서 사용한다. 虛寒이 심한 경우에는 理中湯에 丁香, 肉桂, 肉果, 訶子和 같은 부류를 加하고 다른 病으로 寒涼藥에 손상된 경우에도 이 예와 같이 치료한다. 葉天士의 醫案중에 陰風이 脾絡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조문<sup>20)</sup>이 있는데 그 처방은 小兒痲瘋厥門<sup>21)</sup>중에 있으며 小兒吐瀉門<sup>22)</sup>속에서 이 증을 가장 상세하게 말하였다. 醫案 뒤쪽에 華岫云<sup>23)</sup>이 俗論을 논박한 것이 가장 뛰어난데 배우는 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통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錢仲陽, 薛立齋<sup>24)</sup>, 李東垣<sup>25)</sup>, 張景岳<sup>26)</sup> 등의 모든 醫家들을 참고하면 남김없이 다 알 수 있다. 다시 살펴 보건데 이 증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우나 잘못된 의론과 치법이 이미 오래되어 세상이 다 같은 風潮로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方中行이 먼저 논박하고 여러 군자들이 뒤에서 논의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거짓된 風潮가 사라지지 않으니 후에 힘 있는 자가 나타

20)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8. p.875.

“面青脉濡, 神呆, 舌縮不伸, 語寂寂然, 痲症四肢皆震, 嘔吐涎沫, 此陰風已入脾絡矣.”

21)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8. p.875.

22)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8. pp.870-874.

23)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p.2687. 清代的 醫家. 字는 南田. 葉天士를 스승으로 모셨으며 1752년에 醫案·溫熱論 및 각종 經驗奇方을 간행하였는데, 완성하기 전에 임종하자 나중에 岳廷璋이 이를 완성하여 『續選臨証指南醫案』이라 하였다.

24)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9.

薛己를 말함. 明代的 醫家. 字는 新甫, 號는 立齋. 內·外·婦·兒·眼·治·本草 등과 通達하고, 특히 瘍科에 정통함. 張元素·李杲등의 영향을 받아, 治病에 그 本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2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2.

李杲를 말함. 金代的 저명한 醫學家로서, 金元四大家의 一人이다. 字는 明之. 自號는 東垣老人. 名醫 張元素를 스승으로 모셨으므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저서로는 『脾胃論』, 『內外傷辨惑論』, 『蘭室秘藏』, 『醫學發明』, 『藥象論』 등이 있다.

26)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9.

張介賓을 말함. 明代的 著名醫家. 字는 景岳, 또는 會卿. 그는 『素問』, 『靈樞』에 대하여 연구가 깊어서 前後 30년에 걸쳐 『類經』을 편성. 著書로는 『類經圖翼』, 『類經附習』, 『質疑錄』을 편집했다.

나서 거짓된 책을 모두 모아서 불태워주기를 바랄 뿐이다. 葉天士醫案을 자세히 살펴 보건데 治法의 절묘함은 전적으로 吐瀉가 나타날 때 미리 그 瘧을 예방하는 데에 있으니 이미 瘧이 발생한 후에 처방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앞에서의 六淫으로 인한 瘧을 다스리는 것도 이 법과 같으니 소위 上工은 이미 病이 난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病이 나기 전에 치료하며 聖人은 이미 어지러워진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워지지 않은 것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客忤瘧(속세에 驚嚇라는 것이 이것이다.)

살펴 보건데 소아는 神怯氣弱하여 이상한 물건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실족해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 백 개의 病證중에 한둘이 있을 정도이니 소아가 원래 가지고 있는 瘧病은 아니며 모두 驚嚇로 인한 것이다. 證은 發熱하고 땀이 있거나 땀이 없거나 하며 얼굴색이 파랗다 붉으며 꿈속에서 헛소리를 하고 손발이 蠕動하니 復脈湯에서 人蔘, 桂枝, 生薑, 大棗를 去하고 丹蔘, 牡丹皮, 犀角을 加하여 心의 體를 補해서 心의 用을 배합한다. 대변이 굳은 경우에는 元蔘을 加하고 대변이 溏한 경우에는 牡蠣을 加하고 땀이 많고 정신이 편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는 경우에는 龍骨, 琥珀, 朱砂등을 加하고 氣는 취하되 質은 쓰지 않으니 중독되는 폐단은 없다.)를 加하며 반드시 자세하게 환자의 가족에게 물어서 정확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예를 사용한다. 만약 말에 조리가 없거나 의심이 가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진찰하여 반드시 정확한 상황을 얻은 후에 약을 사용해야 한다.

내 아이가 세 살 때 6월 9일 辰時에 문에 기대다가 떨어져서 잠시 후에 發熱하고 열이 남에 따라 瘧이 발생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발이 얼음같이 차고 脈이 없었으며 戌時가 돼서 瘧은 그쳤지만 身熱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땀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復脈湯에 人蔘, 桂枝, 生薑, 大棗를 去한 처방을 매일 한 첩씩 서너 잔을 복용시켰다. 음식은 먹지도 않고 14일 巳時가 돼서 戰汗이 있으면서 나왔다. 만약 瘧厥과 神昏할 때에 妄動해서 잘못 치료하면 어찌

살릴 수 있었겠는가! 대개 瘧厥은 陰陽이 逆亂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고 환자가족의 마음은 급하여 약을 문란하게 잘못 투여하거나 침과 뜸을 문란하게 잘못 처치하여 죽게 되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환자가족이 오락가락하거나 의사 또한 오락가락한다면 아이의 病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心包絡에 熱이 심하여 입술과 혀가 건조하고 눈 흰자위에 실핏줄이 있는 경우에는 牛黃清心丸과 본 책의 牛黃安宮丸이나 紫雪丹 같은 부류의 약을 사용하는데 이 또한 참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

汪按: 속세에 驚風이라고 잘못 전해 내려오는 證은 오로지 이 하나의 證만이 부합된다. 그 원인이 風이나 熱로 인한 驚은 神氣가 昏憤하여 종종 바로 앞에서 북을 치고 총을 쏘도 전혀 알지 못하며, 客忤란 證은 정신이 놀라고 膽怯하여 특이한 말과 특이한 복장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니 分別하기가 아주 쉽다. 또 살펴 보건데 이 證은 心氣가 본래 虛한 것으로 復脈湯중에서 人蔘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本臟自病瘧(이 證은 癩病이다.)

살펴 보건데 이 證은 평소에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寒邪에 感受받을까 걱정되어 이불을 지나치게 두텁게 덮어주고 옷을 지나치게 두텁게 입히거나 겨울에 방을 지나치게 덥게 해서 소아가 매일 땀이 나는데 땀을 많이 흘려 亡血이 되는데, 또한 産後에 亡血로 瘧이 발생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肝은 血을 주지하고 肝은 血로 自養하니 血이 충족되면 부드럽고 血이 虛하면 굳어지므로 本臟自病이라 한다. 그러나 이 瘧은 도 실로 六淫에 의한 瘧의 근원으로 대개 땀이 많아서 亡血이 된 경우는 本臟自病이나 땀을 많이 흘려서 衛陽이 망실되면 六淫의 邪氣에 쉽게 感受받는다. 확실하고 분명한 의사가 이 이치를 꿰뚫고서 평소에 아이의 부모에게 미리 알려서 지나치게 따뜻하게 하여 땀을 많이 흘려 亡血이 되지 않게 하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한한 病을 물리치니 이것이 소위 治未病이다. 本臟自病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는 育陰柔肝을 위주로 하는데 産後에 亡血이 일으킨 瘧과 같으니 이른바 血이 충족되면 風은 저절로 사라진다

는 것이다. 六味地黃丸, 復脈湯, 三甲復脈湯의 세 처방, 大小定風珠 두 처방, 專翁膏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한다. 專翁膏는 瘧이 그친 후에 쓰는데 매일 四, 五錢을 두 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데 陰을 채워서 뒤처리를 잘하기 위함이다. 六淫에 잘못 發汗시켜 瘧을 일으킨 경우에도 또한 이 예와 같이 한다. 風溫과 溫熱에 잘못 發汗시킨 경우에는 먼저 陰을 보존시키는 약을 투여하는데 傷寒으로 잘못 發汗시킨 경우에 급히 陽을 보호하는 약을 투여하는 것과는 다른데 대개 寒病은 陽이 부족하고 溫病은 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徵按: 瘧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는 곧 督脈의 病이다. 秦越人の 『難經』에 督脈이 病이 되는 것은 척추가 뻗뻗해서 厥이 되는 것이라 하였고, 張仲景의 『金匱要略』에 척추가 뻗뻗해지는 것은 五瘧을 총칭한 이름이라 하였는데 그 證은 갑자기 口噤하고 등이 반대로 휘어져서 癱瘓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부분을 아주 목직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張仲景의 완전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했다고 할 수 있다.

#### 【考察】

本 論은 小兒瘧病의 辨證論治를 제시하였다. 小兒瘧病을 모두 9개로 나누었는데, 六淫에 의한 것으로는 寒瘧, 風溫瘧, 溫熱瘧, 暑瘧, 濕瘧, 燥瘧 등 6개이며 外傷에 의한 것으로는 客忤瘧 1개이며 內傷에 의한 것으로는 內傷飲食瘧, 本臟自病 등 2개가 있다.

寒瘧은 張仲景이 이미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柔瘧은 痰이 있으며 風多寒少하니 桂枝湯加瓜蒌를 사용하며 強瘧은 寒瘧으로 痰이 없으니 葛根湯을 사용한다.

風溫瘧은 風氣가 발생하는 시기에 溫熱의 邪氣를 받아서 생기는 것으로 辛涼輕劑나 辛涼重劑를 사용한다.

溫熱瘧의 치료는 風溫瘧과 같다.

暑瘧은 溫熱과 멀지 않다. 소아는 肌膚가 薄弱하고 神怯하고 經絡과 臟腑가 연약한데 暑邪가 침입하면 傳變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여름에 暑邪가 風寒의 邪氣를 겸하면 新加香薷飲을 사용한다. 邪氣가 衛分에 있어 衛氣가 鬱滯되어 痰이 나는데 不暢하면 銀翹

散에 桑葉을 많이加해서 사용한다. 기침을 주로하면 宣肺止咳하는 桑菊飲을 사용한다. 陽明氣分에 熱이 성하여 痰이 많으면 白虎湯을 사용하며 暑熱로 氣津이 모두 상했을 때는 白虎加人蔘湯을 사용하며 濕이重하여 痰이 적으면 蒼朮白虎湯을 사용한다. 氣와 陰이 모두 虛하면 生脈散을 사용하고 邪熱이 營分을 침입해서 정신이 흐려지면 清營湯을 加減하여 사용하고 邪熱이 心包로 들어가 神昏하면 紫雪丹이나 牛黃丸을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三焦篇의 暑門을 참고하면 된다. 약물의 용량은 소아의 체질에 따라 정확하게 맞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暑邪가 일으킨 瘧證은 瘧이란 증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病因을 정확히 알고서 원인을 치료하면 된다.

濕瘧이 입장에서 아주 드문 이유는 濕邪의 성질과 風邪의 성질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濕邪는 風邪를 겸해야 만이 瘧病이 나타난다. 또한 濕邪가 오랫동안 낫지 않았을 때에 瘧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瘧病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外邪를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燥瘧은 燥氣가 火로 변하여서 津液을 태워서 발생하는 것이니 燥瘧의 治법은 辛涼甘潤法을 사용한다. 燥邪에 濕邪를 겸한 경우에는 苦辛淡한 약물을 사용하되 심한 경우에는 苦辛寒한 약물을 사용한다. 燥氣가 寒化하면 苦溫을 위주로 하고 甘辛으로 보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內傷飲食瘧은 吐瀉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脾胃가 모두 손상된 경우, 脾陽만 손상된 경우, 胃陽만 손상된 경우, 腎陽까지 손상된 경우 등이 있다. 그래서 처방은 補氣, 補中, 溫裏 등의 처방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葉天士醫案에 그 治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吐瀉가 나타난 때 미리 그 瘧病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瘧病이 발생한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病證은 소아과 병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우니 미리 예방을 하여야 한다.

客忤瘧은 놀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發熱하고 痰이 있거나 없거나 하고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며 꿈속에서 헛소리를 하고 손발이 蠕動한다. 처방은 復脈湯을 加減하여 心陰을 補해서 心陽과 어우러지게 한다. 驚厥은 치료가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으니 의사는 오락가락하지 말고 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本臟自病은 소아를 너무 덥게 키워서 땀을 지나치게 흘려 瘧病이 발생한 것이다. 땀을 지나치게 흘리면 血이 虛해져서 筋을 자양시키지 못하게 되니 瘧病을 초래한다. 이는 產後亡血로 인해 발생하는 瘧病을 치료하는 방법과 같다. 그래서 六味地黃, 復脈湯類, 定風珠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며 專翕膏는 경련이 그친 후에 사용한다. 外感六淫病에 誤汗하여 생긴 瘧病에도 처방은 이와 같이 한다. 다만 風溫과 溫熱에 感受받은 상태에서 誤汗한 경우에는 먼저 陰液을 보충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本臟自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아이를 따뜻하게 하지 말라고 일러두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治末病이다.

## 10.小兒易瘧總論

### 【原文】

按小兒易瘧之故, 一由於肌膚薄弱, 臟腑嫩小, 傳變最速; 一由於近世不明六氣感人之理, 一見外感無論何邪, 即與發表. 既瘧之後, 重用苦寒, 雖在壯男壯女, 二, 三十歲, 誤汗致瘧而死者, 何可勝數! 小兒薄弱, 則更多矣. 余於醫學, 不敢自信, 然留心此証幾三十年, 自覺洞徹此理, 嘗謂六氣明而瘧必少, 敢以質之明賢, 共商救世之術也.

### 【解釋】

살펴 보건데 소아가 瘧이 잘 발생하는 까닭은, 하나는 肌膚가 薄弱하고 臟腑가 어려서 傳變이 가장 신속하며, 하나는 요즘 六氣가 인체에 침입하는 機轉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 일단 外感病이기만 하면 어떤 邪氣인지를 막론하고 發表藥을 투여한다. 이미 瘧이 발생한 후에는 苦寒藥을 重用하면 비록 이삼십대의 건장한 남녀라 할지라도 잘못 發汗시켜서 瘧을 일으켜 죽게 되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소아는 薄弱하니 대부분 죽게 된다. 내가 의학에 있어서 감히 자신은 못하지만 이 증을 몇 십년동안 마음에 두고서 이 이치를 통찰하여 스스로 깨달았으며, 일찍이 六氣를 명확히 하면 瘧도 반드시 적어진다고 말하고

서 감히 明賢들에게 물어서 함께 세상을 구하는 이치를 토의한다.

### 【考察】

소아가 瘧에 잘 걸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소아의 臟腑가 어려서 傳變이 신속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外邪에 感受받았을 때 어떤 邪氣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무조건 發表藥을 투여하는 것이다. 일반 의사들이 잘못 發汗시켜서 瘧을 유발시켜 죽게 되는 환자를 吳鞠通이 수없이 보고서 이 論을 쓰는 것인 만큼 瘧病을 치료할 때는 六淫의 邪氣중 어떤 邪氣인지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한다.

## 11.瘧病瘧病總論

### 【原文】

『素問』謂太陽所至為瘧, 少陽所至為瘧. 蓋瘧者, 水也; 瘧者, 火也; 又有寒瘧, 熱瘧之論最詳. 後人不分瘧, 瘧, 瘧為三病, 統言曰驚風痰熱, 曰角弓反張, 曰搐搦, 曰抽掣, 曰癇, 瘧, 瘧. 方中行作『瘧書』, 其或問中所論, 亦混瘧而為瘧, 籠統<sup>(1)</sup>議論. 葉案中治癇, 瘧, 瘧最詳, 而統稱瘧瘧, 無瘧之名目, 亦混瘧為瘧. 考之他書, 更無分別. 前瘧病論因之, 從時人所易知也. 謹按瘧者, 強直之謂, 後人所謂角弓反張, 古人所謂瘧也. 瘧者, 蠕動引縮之謂, 後人所謂抽掣, 搐搦, 古人所謂瘧也. 抽掣搐搦不止者, 瘧也. 時作時止, 止後或數日, 或數月復發, 發亦不待治而自止者, 癇也. 四肢冷如冰者, 瘧也; 四肢熱如火者, 瘧也; 有時而冷如冰, 有時而熱如火者, 亦瘧也. 大抵瘧, 瘧, 癇, 瘧四門, 當以寒熱虛實辨之. 自無差錯. 仲景剛瘧柔瘧之論. 為傷寒而設, 未嘗議及瘧病, 故總在寒水一門, 兼風則有有汗之柔瘧, 蓋寒而實者也; 除寒瘧外, 皆瘧病之實而熱者也. 濕門則有寒瘧有熱瘧, 有實有虛; 熱病久耗其液, 則成虛熱之瘧矣. 前列小兒本臟自病一條, 則虛熱也. 產後驚風之瘧, 有寒瘧, 仲景所云是也; 有熱瘧, 本論所補是也. 總之瘧病宜用剛而溫, 瘧病宜用柔而涼. 又有瘧而兼瘧, 瘧而兼瘧, 所謂水極而似火, 火極而似水也. 至於癇証, 亦有虛有實, 有留邪在絡之客邪, 有五志過極之臟氣, 葉案中辨之最詳, 分別治之可也. 璠因前輩混瘧與瘧為一証, 故分晰而詳論之, 以備裁采.

徵按：此亦數千年之疑案，莫能剖而析之，女媧煉石補天<sup>27)</sup>，予獨不以其言爲河漢<sup>28)</sup>。

【字句解】

(1)籠統：두루뭉술하다.

(2)煉石補天：太古시대에 女媧氏가 하늘이 뚫린 것을 보고 五色의 돌을 불려서 하늘을 메웠다는 전설.

(3)河漢：허황된 말.

【解釋】

『素問』에 太陽이 이르면 瘧이 되고 少陽이 이르면 瘧가 된다고 하였다<sup>27)</sup>. 대개 瘧이라는 것은 水이고 瘧라는 것은 火이며 또 寒厥과 熱厥에 대한 이론도 상세하다. 후대의 사람들은 瘧, 瘧, 厥 세 가지 病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驚風痰熱, 角弓反張, 搐搦, 抽掣, 癇, 瘧, 厥 등이라고 말한다. 方中行이 지은 『瘧書』에 그 或問에서 論한 내용 중, 瘧를 瘧으로 혼동하여 두루뭉술하게 議論한다. 葉天士醫案중에 癇, 瘧, 厥을 다스리는 내용이 가장 상세한데 瘧이라 통칭하며 瘧의 이름은 없으니 또한 瘧를 瘧으로 혼동하고 있다. 다른 책을 조사해 보건데 더욱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며 앞에서 瘧病을 논하면서도 瘧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쉽게 한 것이다. 삼가 살펴 보건데 瘧이라는 것은 強直을 말한 것으로 後代의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角弓反張이고 古代의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瘧이다. 瘧라는 것은 蠕動하여 拘攣하는 것을 말하는데 後代의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抽掣, 搐搦이고 古代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瘧이다. 抽掣搐搦이 그치지 않는 것이 瘧이다. 발작했다가 그치며 그친 후에 며칠간 혹은 몇 달간 반복해서 발작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발작이 저절로 그치는 것은 癇이다. 四肢가 얼음과 같이 찬 것은 厥이고 四肢가 불꽃과 같이 뜨거운 것은 瘧이고 때론 얼음과 같이 차갑다가 때로는 불꽃과 같이 뜨거운 것 또한 瘧이다. 대저 瘧, 瘧, 癇, 厥 네 가지는 寒熱虛實로 辨證해야 착오가 없다. 張仲景이 強瘧과 柔瘧으로 논한 것<sup>28)</sup>은 傷寒을 위해 만든 것으로 瘧病은 언급

한 적이 없으므로 寒水門에 모아서 風을 겸하면 瘧이 있는 柔瘧이 있어서 대개 寒實證이며 寒瘧을 제외하면 대개 瘧病은 實熱證인 것이다. 濕門에 寒瘧이 있고 熱瘧이 있으며 實이 있고 虛가 있으며, 熱病으로 진액이 오랫동안 손상이 되면 虛熱의 瘧가 된다. 앞에서 열거한 小兒의 本臟自病이란 조문은 虛熱이다. 產後에 驚風이 일으킨 瘧은 寒瘧으로 張仲景이 말한 것이며 熱瘧는 본 책에서 보충한 바이다. 종합하건데 瘧病에는 強하면서도 溫한 약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瘧病에는 부드러우면서 서늘한 약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瘧이 瘧를 겸하기도 하고 瘧가 瘧을 겸한 것은 이른바 水極似火, 火極似水이다. 癇證에는 또한 虛가 있고 實이 있으며 邪氣가 絡에 머무른 客邪가 있고 五志가 과다해서 생긴 臟氣가 있으니 葉天士의 醫案중에 辨證한 것이 가장 상세하니 分別해서 치료하면 좋다. 吳瑭인 나는 前代에 瘧와 瘧을 하나의 證으로 혼동하였으므로 분명하게 분석하고 상세하게 논술하여서 갖추어 실었다.

徵按：이 또한 수천여년동안의 의심스러운 議案이라 분석할 수 없었지만 옛날의 女媧氏가 돌을 달구어서 하늘을 메웠는데 나는 오직 그 말이 허황된 말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考察】

본 論은 瘧, 瘧, 癇, 厥 등의 證治를 제시하였다. 瘧은 강직한 것을 말한 것이고, 瘧는 蠕動하여 拘攣한 것을 말한 것이고, 癇은 발작했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발작이 저절로 그치는 것이며, 厥은 四肢가 차거나 뜨거운 것을 말한다. 瘧은 寒實證이고 瘧는 實熱證이다. 그러나 熱病으로 진액이 오랫동안 손상이 되는 것은 虛熱의 瘧이고 앞에 나온 本臟自病도 虛熱의 瘧이다. 瘧病이 瘧病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瘧病이 瘧病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癇證에도 虛實의 구별이 있다. 치료에 있어서 경은 剛燥辛溫한 약물로 發表시켜야 하고 瘧는 甘涼한 약물로 滋潤시켜야 한다. 이 論은 자주 혼동하는 瘧와 瘧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2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9卷). 大邱. 金星印刷社. 2001. p.239.

“太陽所至爲瘧汗瘧”, “少陽所至爲瘧注購瘧暴死”

28)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55.

## 12.六氣當汗不當汗論

【原文】

六氣六門，止有寒水一門，斷不可不發汗者。傷寒脈緊無汗，用麻黃湯正條；風寒挾痰飲，用大小青龍一條。飲者，寒水也，水氣無汗，用麻黃甘草，附子麻黃等湯，水者，寒水也，有汗者即與護陽。濕門亦有發汗之條，兼寒者也；其不兼寒而汗自出者則多護陽之方。其他風溫禁汗，暑門禁汗，亡血禁汗，瘡家禁汗，禁汗之條頗多，前已言之矣。蓋傷於寒者，必入太陽，寒邪與寒水一家，同類相從也。其不可不發者何？太陽本寒標熱，寒邪內合寒水之氣，止有寒水之本，而無標熱之陽，不成其為太陽矣。水來克火，如一陽陷於二陰之中，故急用辛溫發汗，提陽外出。欲提陽者，烏得不用辛溫哉！若溫暑傷手太陰，火克金也，太陰本燥標濕，若再用辛溫，外助溫暑之火，內助臟氣之燥，兩燥相合，而土之氣化無從<sup>(1)</sup>，不成其為太陰矣，津液消亡，不極何待！故初用辛涼以救本臟之燥，而外退溫暑之熱；繼用甘潤，內救本臟之濕，外敵溫暑之火，而臟象化氣，本來面目可不失矣。此溫暑之斷不可發汗，即不發汗之辛甘，亦在所當禁也。且傷寒門中，寒門中，兼風而自汗者，即禁汗，所謂有汗不得用麻黃。無奈近世以羌活代麻黃，不知羌活之更烈於麻黃也。蓋麻黃之發汗，中空而通，色青而疏泄，生於內地，去節方發汗，不去節尚能通能留，其氣味亦薄；若羌活乃羌地<sup>(2)</sup>所生之獨活，氣味雄烈不可當。試以麻黃一兩，煮於一室之內，兩三人坐於其側，無所苦也。以羌活一兩，煮於一室內，兩三人坐於其側，則其氣味之發泄，弱者即不能受矣。溫暑門之用羌，防，柴，葛，產後亡血家之用當歸，川芎，澤蘭，炮姜，同一殺人利劍，有心者共籌<sup>(3)</sup>之。

徵按：麻黃輕虛，形如肺管，宣陽救肺，遇雍塞之證，有用至一，二兩方效者。羌活中實，形如骨節，故能竄走周身，追風至骨，其去麻黃遠矣。

【字句解】

- (1)無從：어쩔 도리가 없다. ~할 길이 없다.
- (2)羌地：羌族(四川省 서북부 일대에 거주하는 중국소수민족의 하나)이 사는 지역.
- (3)籌：계획하다. 연구하다.

【解釋】

六氣의 여섯 가지에 寒水門이 있는데 절대로 發汗할 수 없다. 傷寒은 脈이 緊하고 汗이 없으면 麻黃湯

을 쓰고<sup>29)</sup> 風寒에 痰飲을 끼고 있으면 大靑龍湯이나 小靑龍湯을 사용한다<sup>30)</sup>. 飲이라는 것은 寒水이니 水氣에 汗이 없으면 麻黃甘草湯이나 附子麻黃湯 등을 사용하며<sup>31)</sup> 水라는 것은 寒水이니 汗이 있으면 陽을 보호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濕門에도 發汗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寒邪를 겸한 것이며 寒邪를 겸하지 않아도 汗이 저절로 나는 것은 대부분 陽氣를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타 風溫禁汗, 暑門禁汗, 亡血禁汗, 瘡家禁汗 등 禁汗의 조문이 자못 많은데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대개 寒邪에 손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太陽으로 들어가는데 寒邪가 寒水와 한 집안이기 때문에 類類相從인 것이다. 發汗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太陽은 本寒標熱인데 寒邪가 안에서 寒水의 氣와 합하면 단지 本氣인 寒水만 있고 標熱의 陽은 없으니 太陽을 형성할 수 없다. 水가 와서 火를 극하는데 예를 들어 一陽이 二陰에 合되므로 신속하게 辛溫發汗하여 陽을 밖으로 내보낸다. 陽을 끌어내는 것은 어찌 辛溫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溫暑邪가 手太陰을 손상시키는데 火가 金을 극하는 것이고 太陰은 本燥標濕인데 만약에 또 辛溫한 약물을 사용하여서 밖으로는 溫暑의 火를 돕고 안으로는 臟氣의 燥를 도와서 두 燥가 相合하면 土의 氣化가 어쩔 도리가 없어서 太陰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고 津液이 사라져서 瘵病이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 辛涼으로 本臟의 燥를 구하고 밖으로 溫暑의 熱을 물리치며 계속해서 甘潤한 약물을 사용하여서 안으로는 本臟의 濕을 구하고 밖으로는 溫暑의 火에 대적하니 本臟이 氣化작용을 행하면 본래 면목을 잃을 수 없다. 이것은 溫暑에 절대로 發汗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辛甘으로 發汗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마땅

29)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98.  
 “太陽病，脈浮緊，無汗發熱，… 麻黃湯主之.”  
 30)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230.  
 “病溢飲者. 當發其汗. 大靑龍湯主之. 小靑龍湯主之.”  
 31)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p.285-286.  
 “裏水. 越婢加朮湯主之. 甘草麻黃湯主之.” “水之爲病. 其脈沈小. 屬少陰. 浮者爲病. 無水虛脹者爲氣. 水發其汗即已. 脈沈者. 宜麻黃附子湯. 浮者宜杏子湯.”

히 禁하는 바이다. 게다가 傷寒門중에 風을 겸하여 自汗이 있는 경우에는 發汗을 禁하는데 이른바 汗이 있는 경우에는 麻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근세에 羌活로 麻黃을 대신하는 것은 羌活 이 麻黃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대개 麻黃의 發汗은 가운데가 비어서 통하고 색이 푸르러서 疎泄하며 내륙에서 자라 마디를 제거해야 비로소 發汗하고 마디를 제거하지 않으면 통하고 머무를 수 있게 하여 그 氣味 또한 薄하며, 만약에 羌活은 羌地에서 자란 獨活인데 氣味가 맹렬하여 적당하지 않다. 시험해 보던데 麻黃 한 냇을 실내에서 달이고 세 사람이 곁으로 앉아 있어도 고통스러움이 없다. 羌活 한 냇으로 실내에서 달여 세 사람이 곁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 氣味가 發泄하여 약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다. 溫暑門에 羌活, 防風, 柴胡, 葛根을 사용한 것이나 產後에 亡血한 자에게 當歸, 川芎, 澤蘭, 炮薑을 사용한 것은 예리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으니 관심 있는 자가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徵按: 麻黃은 가뭇고 속이 비어있는 것이 모양이 마치 肺의 관과 같아서 宣陽救肺한다. 肺가 壅塞한證을 만난 경우에는 한두 냇까지 써야 만이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 羌活은 속이 가득차서 모양이 마치 骨節과 같으므로 온몸을 뚫고 다니면서 뼈속까지 風을 몰아낼 수 있으니 麻黃과는 거리가 멀다.

#### 【考察】

六氣중 寒邪에 感受받으면 發汗法을 사용한다. 그 외 風, 溫, 暑, 火, 燥 등에는 發汗法을 사용할 수가 없으며 血이 부족한 것과 瘡病에도 發汗할 수가 없다. 이외에 寒邪라도 汗이 있으면 發汗法을 사용할 수가 없으며 濕邪라도 寒邪를 겸한 경우에는 發汗할 수가 있다. 溫暑의 治法은 초기에 辛涼한 약을 써서 안으로는 本臟의 燥熱을 제거하고 밖으로는 溫暑의 熱邪를 몰리친다. 계속해서 甘潤한 약을 써서 안으로 本臟의 陰을 구하고 밖으로는 溫暑의 火邪에 대항한다.

羌活이 麻黃보다 훨씬 發汗하는 성질이 강하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辛溫發表藥이지만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만큼 그 쓰임새가 다른데 이 두 가지

를 비교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 13. 疢疾論

#### 【原文】

疢者, 干也, 人所共知. 不知干生於濕, 濕生於土虛, 土虛生於飲食不節, 飲食不節, 生於兒之父母愛其子, 惟恐其兒之飢渴也. 蓋小兒之臟腑薄弱, 能化一合者, 與一合有半, 即不能化, 而脾氣郁矣. 再小兒初能飲食, 見食即愛, 不擇精粗, 不知滿足, 及脾氣已郁而不舒, 有拘急之象, 兒之父母, 猶認為飢渴而強與之. 日復一日, 脾因郁而水谷之氣不化. 水谷之氣不化而脾愈郁, 不為胃行津液, 濕斯停矣. 土惡濕, 濕停而脾胃俱病矣.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 中焦不受水谷之氣, 無以生血而血干矣. 再水谷之精氣, 內入五臟, 為五臟之汁; 水谷之悍氣, 循太陽外出, 捍衛外侮之邪而為衛氣. 中焦受傷, 無以散精氣, 則五臟之汁亦乾; 無以行悍氣, 而衛氣亦餒<sup>(1)</sup>, 衛氣餒故多汗, 汗多而營血愈虛, 血虛故肢體日瘦, 中焦濕聚不化而腹滿, 腹日滿而肢愈瘦, 故曰干生於濕也. 醫者誠能識得乾生於濕, 濕生於土虛, 且扶土之不暇, 猶敢恣用苦寒, 峻傷其胃氣, 重泄其脾氣哉! 治法允推東垣, 錢氏, 陳氏, 薛氏, 葉氏, 誠得仲景之心法者也. 疏補中焦, 第一妙法; 升降胃氣, 第二妙法; 升陷下之脾陽, 第三妙法; 甘淡養胃, 第四妙法; 調和營衛, 第五妙法; 食後擊鼓, 以鼓動脾陽, 第六妙法(即古者以樂侑食之義, 鼓蕩陽氣, 使之運用也); 『難經』謂傷其脾胃者, 調其飲食, 第七妙法; 如果生有疢虫, 再少用苦寒酸辛, 如蘆薈, 胡黃連, 烏梅, 使君, 川椒之類, 此第八妙法; 若見疢即與苦寒殺虫便誤矣, 考潔古, 東垣, 每用丸藥緩運脾陽, 緩宣胃氣, 蓋有取乎渣質有形, 與湯藥異岐, 亦第九妙法也.

近日都下相傳一方, 以全蠍三錢, 烘乾為末, 每用精牛肉四兩, 作肉團數枚, 加蠍末少許, 蒸熟令兒逐日食之, 以全蠍末完為度, 治疢疾有殊功. 愚思蠍色青, 屬木, 肝經之虫, 善竄而疏土, 其性陰, 兼通陰絡, 疏脾郁之久病在絡者最良, 然其性剝悍有毒. 牛肉甘溫, 得坤土之精, 最善補土, 稟牡馬之貞, 其性健順, 既能補脾之體, 又能運脾之用. 牛肉得全蠍而愈健, 全蠍得牛肉而不悍, 一通一補, 相需成功, 亦可備用. 一味金雞散亦妙

(用雞內金不經水洗者, 不拘多少, 烘乾為末, 不拘何食物皆加之, 性能殺虫磨積, 即鷄之脾, 能復脾之本性). 小兒疳疾, 有愛食生米, 黃土, 石灰, 紙, 布之類者, 皆因小兒無知, 初飲食時, 不拘何物即食之, 脾不能運, 久而生虫, 愈愛食之矣. 全在提携之者, 有以謹之於先; 若既病治法, 亦惟有暫運脾陽, 有虫者兼與殺虫, 斷勿令再食, 以新推陳, 換其臟腑之性, 復其本來之真方妙.

徵按: 奇偶偏方, 每多奏效, 其力專也. 猶憶幼務學業時, 業師華陰孝廉李公, 世精于醫, 有以患疳證之小兒來求治者, 出一方, 則惟大棗百枚, 去核, 象核之大小, 實以生軍, 外裹以面, 煨透熟搗為丸, 如小棗核大, 每服七丸, 日再服, 神效. 此亦一通一補法也.

【字句解】

(1) 餒: 손상하다.

【解釋】

疳이라는 것이 乾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바다. 乾이 濕에서 생겨난 것은 모르는데 濕은 土虛에서 생겨나고 土虛는 음식의 무절제에서 생겨나고 음식의 무절제는 아이의 부모가 그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오로지 아이가 굶주리고 목이 마를까봐 염려하에서 생겨난다. 대개 소아의 臟腑는 薄弱하여 한 흡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아이에게 한 흡만을 주면 소화할 수 없어서 脾氣가 鬱滯된다. 또 소아가 처음 먹고 마실 때에 먹는 것을 보면 사랑스러워서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만족할 줄 모르니 脾氣가 鬱滯되어 퍼지지 않으면 拘急의 형태를 지니게 되어 아이의 부모는 굶주리고 갈증이 나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먹인다. 하루하루 반복하면 脾는 鬱滯됨으로 인해 水穀의 氣는 不化하게 된다. 水穀의 氣가 不化하면 脾는 더욱 鬱滯되어 胃는 진액을 운행시킬 수 없고 濕은 정체된다. 土는 濕을 싫어하니 濕이 정체 되면 脾胃가 모두 病이 든다. 中焦가 氣를 받아서 汗을 취하여 붉은 것으로 변화한 것을 血이라 하고 中焦가 水穀의 氣를 받지 않으면 血을 만들 수 없어서 血은 마르게 된다. 또 水穀의 精氣는 안으로 五臟으로 들어가 五臟의 즙이 되고 水穀의 悍氣는 太陽을 돌아 밖으로 나와 밖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邪氣를 막는 衛氣가 된다. 中焦가 손상을 받아서 精氣를 퍼트리지 못하니 五臟의 즙 또한 마르며 悍氣를 운행시키

지 못하여 衛氣 또한 傷하니 衛氣가 상하면 땀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면 營血이 더욱 虛해지고 血이 虛하므로 지체가 날로 야위고 中焦에 濕이 쌓여 온화하지 못하니 腹滿하고 배가 날로 그득하면 四肢가 날로 야위므로 乾은 濕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게다가 의사가 정말로 乾이 濕에서 생겨나고 濕이 土虛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감히 제멋대로 苦寒藥을 사용하여 胃氣를 강하게 손상시키고 脾氣를 무겁게 泄하겠는가! 治法은 李東垣, 錢乙, 陳文中<sup>32)</sup>, 薛立齋<sup>33)</sup>, 葉天士<sup>34)</sup> 등을 추천하는데 진실로 張仲景의 心法을 얻은 사람들이다. 中焦를 疎補하는 것이 첫 번째 훌륭한 방법이고 胃氣를 승강시키는 것이 두 번째 훌륭한 방법이고 下陷하는 脾陽을 올리는 것이 세 번째 훌륭한 방법이고 甘淡한 약물로 養胃하는 것이 네 번째 훌륭한 방법이고 營衛를 조화시키는 것이 다섯 번째 훌륭한 방법이고 식후에 복을 쳐서 脾陽을 鼓動시키는 것이 여섯 번째 훌륭한 방법이고 『難經』에 脾胃가 손상된 경우에 음식을 조절하라고 한 것<sup>35)</sup>이 일곱 번째 훌륭한 방법이고 만약에 疳蟲이 생긴 경우에 예를 들어 蘆會, 胡黃連, 烏梅, 使君子, 川椒등의 苦寒辛酸한 약물을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여덟 번째 약물이고 만약에 疳을 보고서 苦寒한 약물

3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7.  
陳文中을 말함. 宋代的 醫家. 字는 文秀. 內·兒科에 精通했는데, 특히 小兒瘡疹에 精通하여 診治에 대부분 현저한 효과를 얻었다. 著述로는 『小兒病源方論』4권, 『陳氏小兒痘疹方』1권 등 書가 있다. 朱丹溪 등은 陳氏의 用藥이 대부분 溫補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았음.

3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9.  
薛雪을 말함. 清代的 저명한 醫家. 字는 生白, 호는 일과. 薛氏는 溫熱病에 능통했는데 醫名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著述이 적었음.

34)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9.  
葉桂를 말함. 清代的 저명 醫家. 字는 天士. 號는 香巖. 葉氏는 時疫과 痧症에 능통하였고, 衛氣營血辨證의 綱領을 제창했으며, 溫熱證의 전염경로, 發病部位 및 辨證論治 등에 대해 모두 독창적인 論을 하여 溫病學을 정립한 사람 중의 한사람이다. 저서로는 『溫熱論』, 『臨証指南醫案』, 『葉案存真』, 『未刻葉氏醫案』 등이 있다.

35) 滑壽原著. 難經本義. 台南市. 世一書局印行. 1984. p.36.  
“損其脾者, 調其飲食, 適其寒溫”

을 사용하여 殺蟲하면 곧 그르치게 되니, 조사해 보건데 張潔古, 李東垣은 매번 丸藥으로 脾陽을 서서히 운행시키고 胃氣를 서서히 宣布한 것은 대개 糖약과는 달리 雜質이 있는 有形의 물질을 취한 것이니 아홉 번째 훌륭한 방법이다.

근래에 도시에서 전해 오는 하나의 처방에, 全蠍 세 돈을 烘乾하여 가루를 내어 매번 정선된 소고기 네 냥을 肉團 여러 개로 만든다. 여기에 全蠍가루를 약간씩 묻혀서 썰서 익히는데 아이에게 조금씩 날마다 全蠍가루가 다 없어질 때까지 먹게 하는데 疳疾을 다스리는데 효과가 크다. 내가 생각하기를 全蠍은 색이 푸르니 脾가 울체되어 오랫동안 病이 絡에 있는 것을 疏散시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우나 그 성질이 標悍하여 毒이 있다. 소고기는 甘溫하며 坤土의 精을 얻어서 土를 가장 잘 補하며 牧馬의 精<sup>36)</sup>을 곱아서 성질이 健順하니 脾의 體를 補할 뿐만 아니라 脾의 用을 운행시킬 수 있다. 소고기는 全蠍을 얻어서 더욱 건실해지고 全蠍은 소고기를 얻어서 不悍하며 하나는 通하고 하나는 補하니 서로 도와 공을 이루니 역시 갖추어 쓸만하다. 一味金鷄散 또한 훌륭하다. (물론 씻지 않은 鷄內金을 수량에 상관없이 烘乾하여 가루를 내어 어떤 음식물이든지 함께 복용하고 성질이 殺蟲磨積하며 닭의 脾이니 脾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小兒疳積은 썩쌀, 황토, 석회, 종이, 천 등을 즐겨 먹는데 모두 소아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떠한 물건이든지 먹게 되니 脾는 運化할 수 없음이 오래되어서 벌레가 생기고 더욱 이러한 것들을 즐겨 먹게 된다. 전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미리 주의시켜야 하는데 만약 이미 病이 생겼다면 治法은 오로지 잠시 脾陽을 運化시키는데 벌레가 있으면 殺蟲약을 함께 투여하고 절대로 다시는 먹지 못하게 하며 새로운 것으로 옛것을 몰아내어 臟腑의 성질을 바꾸어서 본래의 참 모습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훌륭하다.

徵按: 한두 개의 약물로 구성된 처방은 매번 효과가 뛰어난데 그 힘이 물리기 때문이다. 여전히 회상

해 보건데 어려서 과거시험에 힘쓰고 있을 때에 스승이신 華陰孝廉李公은 여러 대에 걸쳐 醫術에 정통하였으며 疳證에 걸린 소아가 와서 치료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의 처방을 내주었다. 大棗 110개를 씨를 제거하고 대추씨크기만한 生大黃으로 속을 채우고 밀가루로 겉을 싼 다음 완전히 익을 때까지 불에 굽고 뿜아서 작은 대추씨 크기만 하게 환을 지었다. 매번 일곱 알을 만들어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이 또한 한편으로 通하게 하고 한편으로 補하는 방법이다.

#### 【考察】

본 論은 疳疾의 證治를 제시한다. 疳疾은 음식의 무절제로 생겨나는 것인데, 음식의 무절제로 中焦가 손상을 받으면 精氣를 퍼트리지 못하니 五臟의 津液이 마르고 衛氣도 손상을 받게 된다. 胃氣가 손상을 받으면 땀이 나고 땀이 많이 나면 營血이 虛해진다. 그래서 血이 虛하니 肢體는 야위고 中焦에 濕이 쌓이니 腹滿하게 된다. 이러한 疳疾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부모가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거나 아이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서 식사량을 지나치게 많이 먹이거나 억지로 먹여서 발생한다.

小兒疳疾을 다스리는 治法에는 12가지가 있다. 첫째는 中焦를 疎補한다. 둘째는 胃氣를 升降시킨다. 셋째는 下陷하는 脾陽을 올린다. 넷째는 甘淡한 약물로 養胃한다. 다섯째는 營衛를 조화시킨다. 여섯째는 脾陽을 鼓動시켜서 水穀을 잘 運化시키게 한다. 일곱째는 음식을 조절한다. 여덟째는 苦寒辛酸한 약물을 조금만 사용하여 安蛔시킨다. 아홉 번째는 糖약보다는 丸藥으로 藥效가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발휘되게 한다. 열 번째는 소고기와 全蠍을 이용해서 만든 肉團을 먹는다. 열한 번째는 鷄內金으로 만든 一味金鷄散을 먹는다. 열두 번째는 평소에 먹지 않는 특이한 물질까지 먹는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물질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다.

## 14. 痘證總論

#### 【原文】

『素問』曰：治病必求其本。蓋不知其本，舉手便誤，

36) 大山 金碩鑣 著. 大산주역강의(1). 파주. 한길사. 2005. p.215.  
牝馬之貞으로 보는 게 옳다.

後雖有錦繡心思，皆鞭長莫及<sup>(1)</sup>矣。治痘明家，古來不下數十，可稱盡善，不比溫病毫無把握，尚俟愚陋之鄙論也。但古人治法良多，而議病究未透徹來路<sup>(2)</sup>，皆由不明六氣為病，與溫病之源。故論痘發之源者，祇<sup>(3)</sup>及其半，謂痘証為先天胎毒，由肝腎而脾胃而心肺，是矣。總未議及發於子午卯酉之年，而他年罕發者何故。蓋子午者，君火司天；卯酉者，君火在泉；人身之司君火者，少陰也。少陰有兩臟，心與腎也。先天之毒，藏於腎臟，腎者，坎也，有二陰以戀一陽，又以太陽寒水為腑，故不發也，必待君火之年，與人身君火之氣相搏，激而後發也。故北口外寒水凝結之所，永不發痘。蓋人生之胎毒如火藥，歲氣之君火如火線，非此引之不發。以是知痘証與溫病之發同一類也。試觀『六元正紀』所載溫厲大行，民病溫厲之處，皆君相兩火加臨之候，未有寒水濕土加臨而病溫者，亦可知愚之非臆說矣。

【字句解】

(1)鞭長莫及: 채찍은 길더라도 말의 배에는 미치지 않는다. 역량이 미치지 못함을 이룸.

(2)來路: 유래

(3)祇: 다만

【解釋】

『素問』에 이르기를 질병을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그 근본을 구해야 한다<sup>37)</sup>고 하였다. 대개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손을 대면 곧 잘못되어 나중에 비록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痘를 치료한 훌륭한 의사는 예로부터 수십 명은 되니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데 溫病이 털끝만큼도 파악이 안 되어 어리석고 천한 議論을 기다리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古代 사람의 治法은 실로 많으나 議病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으며 모두 六氣가 病이 되는 것과 溫病의 근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痘가 발생하는 원인을 논하는 경우에는 다만 그 절반만을 언급하여 痘証이 先天胎毒에 의한 것으로 肝腎에서 脾胃로 다시 心肺로 전변한다고 하는 것은 옳다. 子午卯酉年에 발병하고 다른 해에 드물게 발병하는 것이 어떤 까닭인지를 끝내 언급하지 않았

다. 대개 子午라는 것은 君火가 司天이고 卯酉라는 것은 君火가 在泉이고 人身에서 君火를 사령하는 것은 少陰이다. 少陰에는 두 臟이 있는데 心和 腎이다. 先天의 毒은 腎臟에 저장되고 腎은 坎이니 二陰이 一陽과 연애하고 또한 太陽寒水를 腑로 삼기 때문에 先天의 毒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드시 君火의 혜를 기다려 人身의 君火의 氣와 상박하면 腎中에 숨어 있던 胎毒이 충격을 받음으로 해서 두증이 나타난다. 충돌한 뒤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북쪽의 寒水가 응결하는 곳에서 다시는 痘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개 인생의 胎毒은 火藥과 같고 운기의 君火는 火線과 같으니 이 火線이 끊어당기지 않으면 터지지 않는다. 이로서 痘証과 溫病의 발병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시험삼아 『六元正紀大論』을 보건데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거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이 모두 君火와 相火가 부닥칠 때이며 寒水와 濕土가 부닥칠 때에 溫病이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했으니 내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考察】

본 論은 痘証의 病因과 病機를 제시하였다. 痘証은 先天胎毒에 의한 것으로 肝腎에서 脾胃로 전변되었다가 다시 心肺로 전변이 된다. 子午卯酉年과 같은 君火가 司天하는 해에 人身의 君火의 氣와 충돌하여 痘証이 나타나기 때문에 北方의 寒水가 응결하는 지역에서는 痘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痘証은 溫病과 발병이 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는 君火가 相火와 충돌하는 때에 溫病이 발생하며 寒水와 濕土가 충돌하는 때에는 溫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15.痘証禁表藥論

【原文】

表藥者，為寒水之氣郁於人之皮膚經絡，與人身寒水之氣相結，不能自出而設者也。痘証由君火溫氣而發，要表藥何用？以寒水應用之藥，而用之君火之証，是猶緣木而求魚也。緣木求魚，無後災；以表藥治痘瘡，後必有大災。蓋痘以筋骨為根本，以肌肉為戰場，以皮膚結

3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1卷). 大邱. 金星印刷社. 2001. p.175.  
“治病必求於本”

痲為成功之地。用表藥虛，表先壞其立功之地，故八，九朝灰白塌陷<sup>(1)</sup>，咬牙寒戰，倒靨<sup>(2)</sup>黑陷<sup>(3)</sup>之証，蜂起矣。古方精妙不可勝數，惟用表藥之方，吾不敢信。今人且恣用羌，防，柴，葛，升麻，紫蘇矣。更有愚之愚者，用表藥以發悶証是也。痘發內由肝腎，外由血絡，悶證有紫白之分：紫悶者，臯毒<sup>(4)</sup>把持太過，法宜清涼敗毒，古用棗變百祥丸，從肝腎之陰內透，用紫雪芳涼，從心包之陽外透；白悶則本身虛寒，氣血不支之證，峻用溫補氣血，托之外出，按理立方，以盡人力，病在裡而責之表，不亦愚哉！

#### 【字句解】

(1)灰白塌陷: 두창색이灰白色이며 속에 물이 없이 비어있거나 물이 있긴 한데 꼭대기가 움푹 들어간 것을 말한다.

(2)倒靨: 痘瘡에서 딱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을 말한다.

(3)黑陷: 痘證 五陷의 하나. 痘瘡이 그 돌레가 건조하면서 중간에 검은 배꼽 같은 것이 있는 것이다. 毒火가 내부에 盛하여 營血이 메말라 발생한다.

(4)臯毒: 毒이 태성한 것을 말함.

#### 【解釋】

表藥은 寒水의 氣가 사람의 피부경락에 鬱滯되었거나 人身의 寒水의 氣와 서로 맺혀서 저절로 나올 수 없어서 만든 것이다. 痘證은 君火의 溫氣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表藥을 가지고서 어디에 쓰겠는가? 寒水에 싸야하는 약을 君火의 證에 쓰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뒤에 오는 재앙은 없지만 表藥으로 痘瘡를 치료하는 것은 뒤에 반드시 큰 재앙이 따른다. 대개 痘는 筋骨로 근본을 삼고 肌肉으로 전쟁터를 삼으며 피부에 딱지가 생긴 것을 성공의 땅으로 삼는다. 表藥을 써서 表를 虛하게 하는 것은 먼저 공을 세우는 땅을 파괴해 버리는 것으로 팔구일에 灰白塌陷, 切牙寒戰, 倒靨, 黑陷 등의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다. 옛날에 훌륭한 처방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오직 表藥을 사용하는 처방을 나는 감히 믿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제멋대로 羌活, 防風, 柴胡, 葛根, 升麻, 紫蘇 등을 사용한다. 더욱 어리석은 자들은 表藥을 사용하여 悶證을 透發시키는 것이 이것이

다. 痘證은 안에서 肝腎으로, 밖에서는 血絡으로 나타나며 悶證에는 紫悶과 白悶의 구분이 있다. 紫悶은 흉악맹렬한 독이 태성한 것으로 清涼敗毒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옛날에는 棗變百祥丸을 사용하여 肝腎의 陰으로부터 透發시키고 芳涼한 紫雪丹을 사용하여 心包의 陽으로부터 透發시킨다. 白悶은 본래 몸이 虛寒하여 氣血이 부족한 證으로 강하게 溫補氣血하여 邪氣를 밖으로 몰아내어 합당한 이치에 따라 처방을 세워 온힘을 다해야 하는데 病이 裏에 있는데 表에 책임을 돌린다면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

#### 【考察】

本論은 痘證의 禁忌와 證治를 제시한다. 痘證은 君火의 溫氣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痘證에 表藥을 사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表藥은 寒水의 邪氣를 다스리는 약인데 君火가 원인인 病證에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는다. 痘는 피부에 딱지가 생기게 해야 하나 表藥을 사용하게 되면 表를 虛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니 팔구일 만에 위험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悶證에 있어서는, 紫悶은 毒이 太盛해서 清涼敗毒한 방법을 사용하고 白悶은 氣血이 부족한 것이니 溫補氣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紫悶과 白悶 모두 裏證이니 모두 表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 16.痘證初起用藥論

#### 【原文】

痘証初起，用藥甚難，難者何？預護之為難也。蓋痘之放肥，灌漿，結痲，總從見點之初立根基，非深思遠慮者不能也。且其形勢未曾顯張，大約辛涼解肌，芳香透絡，化濁解毒者，十之七，八；本身氣血虛寒，用溫煦保元者，十之二，三。尤必審定兒之壯弱肥瘦，黑白青黃，所偏者在？所不足者在？審視體質明白，再看已未見點，所出何苗？參之春夏秋冬，天氣寒熱燥濕，所病何時？而後定方。務於七日前先清其所感之外邪，七日後只有胎毒，便不夾雜矣。

微按：治痘之法，全是活潑潑地，不可執一。諺云：走馬看傷寒，回頭看痘疹，言其轉關最速也。

#### 【解釋】

痘證초기에는 用藥이 매우 어려운데 어떤 점이 어려운가? 예방하고 방어하는 것이 어렵다. 대개 痘가 부풀고 물이 차고 딱지가 생기는 것은 점이 처음 나타나는 때에 토대를 세우는데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형세가 아직 드러나지 않으면 대략 辛涼解肌, 芳香透絡, 化濁解毒하는 경우가 十中七八이고 본래 신체가 氣血이 虛寒하여 溫煦保元하는 경우는 十中二三이다. 특히 반드시 소아의 신체의 강약과 肥瘦, 黑白靑黃을 자세히 살펴서 치우친 바가 어디에 있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체질이 명백하면 다시 점이 나타났는지, 어떤 점이 나타났는가와 春夏秋冬과 天氣의 寒熱燥濕을 참고하여 언제 발병했는지를 살핀 후에 처방을 정해야 한다. 7일전에는 感受받은 外邪를 먼저 제거하는 데에 힘쓰면 7일후에는 단지 胎毒만 남고 雜邪가 끼지 않는다.

徵按: 痘證을 치료하는 방법은 활발하게 해야지 어느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속담에 대충대충 볼 때는 傷寒이더니 잠시 후에 다시 보니 痘疹이더라는 말이 있는데 그 轉變이 아주 신속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考察】

본 論은 痘證초기의 用藥을 제시하였다. 痘證초기에는 대부분 辛涼解肌, 芳香透絡, 化濁解毒해야 하며 氣血이 虛寒한 경우에는 溫煦保元해야 한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아신체의 強弱, 肥瘦, 皮膚색의 黑白靑黃 등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소아의 체질이 파악된 후에는 어떤 점이 나타났는가와 계절, 六淫을 참고하여서 언제 發病했는지를 살핀 후에 처방을 정해야 한다. 發病해서 7일까지는 外邪를 먼저 제거해야 만이 7일후에는 胎毒만 남을 뿐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다.

17. 治痘明家論

【原文】

治痘之明家甚多, 皆不可偏廢者也. 若專主於寒, 熱, 溫, 涼一家之論, 希圖省事, 禍斯亟矣.

痘科首推錢仲陽, 陳文中二家, 錢主寒涼, 陳主溫熱,

在二家不無偏勝, 在後學實不可偏廢. 蓋二家猶水火也, 似乎極不同性, 宗此則害彼, 宗彼則害此. 然萬物莫不成於水火, 使天時有暑而無寒, 萬物焦矣, 有寒而無暑, 萬物冰矣, 一陰一陽之謂道, 二家之學, 似乎相背, 其實相需, 實為萬世治痘立宗旨. 宗之若何? 大約七日以前, 外感用事, 痘發由溫氣之行, 用錢之涼者十之八, 九, 用陳之溫者一, 二. 七日以後, 本身氣血用事, 純賴臟真之火, 煉毒成漿, 此火不外鼓, 必致內陷, 用陳之溫者多, 而用錢之涼者少也. 若始終實熱者, 則始終用錢; 始終虛寒者, 則始終用陳; 痘科無一定之證, 故無一定之方也. 丹溪立解毒, 和中, 安表之說, 亦最為扼要. 痘本有毒可解, 但須解之於七日之前, 有毒郁而不放肥, 不上漿者, 烏得不解毒哉! 如天之亢陽不雨, 萬物不生矣. 痘證必須和中, 蓋脾胃最為吃緊, 前所謂以中焦作戰場也. 安表之論, 更為妙諦, 表不安, 雖至將成猶敗也, 前所謂以皮膚結痂, 為成功之地, 而可不安之也哉! 安之不暇, 而可混發以傷之也哉! 至其宗錢而非陳, 則其偏也. 萬氏以脾胃為主, 魏氏以保元為主, 亦確有見識, 雖皆從二家脫化, 而稍偏於陳. 費建中『救偏瑣言』, 蓋救世人不明痘之全體大用, 偏用陳文中之辛熱者也; 書名救偏, 其意可知, 若專主其法, 悉以大黃, 石膏從事, 則救偏而反偏矣. 胡氏輒投汗下, 下法猶有用處, 汗法則不可也. 翁仲仁『金鏡錄』一書, 誠為痘科寶筏<sup>(1)</sup>, 其妙處全在於看, 認証真確, 治之自效, 初學必須先熟讀其書, 而後歷求諸家, 方不誤事. 後此翟氏, 聶氏, 深以氣血盈虧, 解毒化毒, 分晰闡揚錢氏, 陳氏底蘊<sup>(2)</sup>, 超出諸家之上, 然分別太多, 恐讀者目眩. 愚謂看法必宗翁氏, 葉氏有補翁仲仁不及之條; 治法兼用錢, 陳, 以翟氏, 聶氏, 為錢, 陳之注, 參考諸家可也. 近日都下盛行『正宗』一書, 大抵用費氏, 胡氏之法而推廣之, 恣用大汗天下, 名歸宗湯, 石膏, 大黃始終重用, 此在臬毒太過者則可, 豈可以概治天下之小兒哉! 南方江西江南等省, 全恃種痘, 一週自出之痘, 全無治法; 醫者無論何痘, 概禁寒涼, 以致有毒火者, 輕者重, 重者死, 此皆偏之為害也.

【字句解】

- (1)寶筏: 미혹을 풀어 주는 사상이나 학설
- (2)底蘊: 상세한 내용, 내막.

【解釋】

痘證을 치료하는 유명한 의사들은 매우 많아서 모

두 한쪽만을 무시할 수가 없다. 만약에 寒, 熱, 溫, 涼의 한쪽만을 전적으로 주장하여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화를 당하게 된다. 痘科는 錢仲陽, 陳文中 두 사람을 맨 먼저 추천하는데 錢仲陽은 寒涼을 주로 사용하고 陳文中은 溫熱을 주로 사용하니 두 사람이 치우쳐서 이기는 바는 없으니 후학들은 실로 한쪽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대개 두 사람은 水火와 같아서 성질이 똑같지 않은 것 같으니 이것을 따르면 저 것이 험가 되고 저것을 따르면 이것이 험가 된다. 그러나 만물이 水火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天時로 하여금 暑는 있고 寒을 없게 하면 만물은 타들어가고 寒은 있되 暑가 없으면 만물은 얼어붙으며, 一陰一陽을 道라고 하는 것으로 두 사람의 학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도와주는 것이니 실로 후세에 痘를 치료하는 主旨가 되었다. 主旨는 무엇인가? 대략 7일 이전에는 外感이 위주라 되는데 痘는 溫氣가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錢仲陽의 寒을 사용하는 것이 疔中一이다. 7일 이후에는 본래 신체가 氣血을 위주로 하는데 순전히 臟腑의 眞火에 의지하여 毒을 태워 물집이 되므로 이 火가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반드시 안에서 함몰되니 陳文中의 溫을 사용하는 것은 많고 錢仲陽의 涼을 사용하는 것은 적다.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實熱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錢仲陽의 방법을 사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虛寒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陳文中의 방법을 사용하며 痘科에 일정한증이 없으니 일정한 처방도 없다. 朱丹溪는 解毒, 和中, 安表의 설을 세워서 요점을 가장 잘 찔렀다. 痘는 본래 毒이 있으면 解毒해야 하나 다만 7일 이전에 반드시 解毒해야 하는데 毒이 울체되어 부풀어 오르지 않고 물이 차지 않으면 어찌 해독할 수가 있겠는가! 하늘에 陽이 亢盛하여 비가 오지 않아서 만물이 생겨나지 않는 것과 같다. 痘證은 반드시 和中하여야 하는데 대개 脾胃가 가장 관건이며 앞에서 中焦를 전쟁터로 삼는 것이라고 말한 바이다. 安表라는 이론은 더욱 묘한데 表가 불안하면 비록 일이 되다가도 막 실패할지니 앞에서 피부에 딱지가 생겨서 성공하는 땅이라고 말한 것이니 편안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安表시키는 것

도 시기가 부족한데 잘못 발표시켜서 손상시키면 되겠는가! 錢仲陽을 따르고 陳文中을 따르지 않는 것은 편견이다. 萬全<sup>38)</sup>은 脾胃를 주장하였고 魏直<sup>39)</sup>은 保元을 주장하였는데 또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錢仲陽과 陳文中의 이론을 탈피하였지만 약간은 陳文中에 치우친다. 費建中<sup>40)</sup>의 『救偏瑣言』은 대개 痘의 全體와 大用을 인식하지 못하고 陳文中의 辛熱에 치우친 것을 바로잡은 것이며 책이름이 救偏인 것만 보아도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고 만약 그 法만을 전적으로 사용하여 大黃과 石膏 같은 약을 사용하면 치우침을 구하려다 도리어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胡大卿<sup>41)</sup>은 항상 汗下法을 사용하였는데 下法은 가끔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汗法은 사용할 수가 없다. 翁仲仁<sup>42)</sup>의 『金鏡錄』은 痘科의 寶筏이니 그 묘미는 진단하는 데에 있으니 證을 정확히 인식하면 치료는 저절로 효과를 보며 초학자는 반드시 먼저 그 책을 숙독한 후에 계속해서 諸家들을 연구하여야 그르치는 일이 없다. 그 후에 翟良<sup>43)</sup>, 聶尙恒<sup>44)</sup>

38)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7.

萬全을 말함. 明代의 醫家. 字는 密齋. 소아과 및 養生學에 정통하여 臨證에 良效가 있었음. 그는 錢乙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錢乙의 五臟辨證理論을發揮하였다. 著書로는 『幼科發揮』, 『育嬰秘訣』, 『廣嗣紀要』, 『痘疹世醫心法』, 『養生四要』 등이 있다.

3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9.

魏直을 말함. 明代의 醫家. 字는 桂巖 또는 延豹라 함. 특히 痘疹을 전문으로 했음. 저서로는 『博愛心鑑』이 있음. 痘疹의 치료에 氣血충족을 우선할 것을 주장하여, 痘疹에 氣血의 補를 중시하였다.

40)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7.

費啓泰를 말함. 明末清初의 醫生. 字는 建中. 痘疹의 流行과 診治는 天時運氣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만약 古法成規에만 얽매이면 항상 病情을 오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저서로는 『救偏瑣言』 10권이 있음.

4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36.

胡大卿을 말함. 宋末의 醫家. 名은 石壁. 陳文秀의 학술사상을 따랐으며, 『痘疹八十一論』을 撰했는데, 그 小兒病의 논술에 矛盾된 곳이 있다.

4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6.

翁仲仁. 明代의 醫家. 字는 嘉德. 小兒科로 이름을 떨침. 『痘疹心法』, 『痘疹金鏡錄』 등 著述함.

은 氣血의 차고 이그러짐과 解毒化毒을 깊이 연구하여 錢仲陽과 陳文中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여 널리 알려져 諸家들 중에서도 뛰어났으나 分別이 너무 심해 讀者가 어지러울까봐 걱정된다. 나는 진단에 있어서는 翁仲仁을 따라야 하고 葉天士는 翁仲仁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충한 조문이 있으며 治法은 錢仲陽과 陳文中의 法을 함께 사용하고 翟良, 聶尚恒의 것을 錢仲陽과 陳文中의 注釋으로 삼고 모든 醫家를 참고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도사에서 『正宗』이란 책이 성행하는데 대저 費建中과 胡大卿의 法을 사용하여 확대 해석하고서 제멋대로 大汗大下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歸宗湯이라 이름하였는데 石膏와 大黃은 처음부터 끝까지 重用하였으니 이는 毒이 지나친 것은 쓸 수 있지만 어찌 세상의 소아에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南方의 江西나 江南 등의 省에서는 전적으로 種痘에 의지하여 일단 저절로 나오는 痘를 접하면 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의사는 어느 痘인지를 막론하고 寒涼한 약물을 일률적으로 禁하여 毒火를 일으키게 되니 가벼운 자는 重해지고 重한 자는 죽게 되는 것으로 이는 모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害가 되는 것이다.

【考察】

본 論은 痘證을 치료하는 역대 醫家들의 學說을 바탕으로 錢乙과 陳文中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痘證에서는 錢乙과 陳文中의 學說이 뛰어나다. 錢乙은 寒涼法을 주로 사용하였고 陳文中은 溫熱法을 주로 사용하였다. 痘證발병후 7일 이전에는 外感溫氣가 유행한 것이 원인이나 대부분 錢乙의 寒涼法을 사용하며 陳文中의 溫熱法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痘證발병후 7일이 지나서는 臟腑의 眞火가 毒氣를 내보내지 못하면 반드시 內陷하게 되니 대부분 陳文中

의 溫熱法을 사용하게 되고 錢乙의 寒涼法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痘證발생 처음부터 끝까지 實熱인 경우에는 錢乙의 寒涼法을 계속 사용하고 痘證발생 처음부터 끝까지 虛寒인 경우에는 陳文中의 溫熱法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痘證의 治法은 解毒, 和中, 安表하는 朱丹溪의 방법을 따른다. 吳鞠通은 萬全, 魏直, 胡大卿, 翁仲仁, 翟良, 聶尚恒 등의 醫家들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이중 翁仲仁의 이론이 가장 정밀하다고 하였다. 또한 治法은 錢乙과 陳文中의 治法을 사용하되 氣血의 盈虧를 조절하고 解毒化毒하는 방법을 사용한 翟良과 聶尚恒의 이론을 陳文中과 錢乙의 注釋으로 삼고 다시 위의 諸家들의 學說을 참고하면 된다고 하였다. 錢乙과 陳文中은 제각기 뛰어난 점이 있지만 후학들은 어느 한쪽만을 취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의 이론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니 후세의 痘證을 치료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18.痘瘡稀少不可恃論

【原文】

相傳痘瘡稀少, 不過數十粒, 或百余粒, 根顆圓綻者, 以為狀元痘, 可不服藥. 遇則以為三, 四日間, 亦須用辛涼解毒藥一帖, 無庸多服; 七, 八日間, 亦宜用甘溫托漿藥一帖, 多不過二帖, 務令漿行滿足. 所以然者何? 愚嘗見稀少之痘, 竟有漿行不足, 結痂後患目, 毒流心肝二經, 或數月, 或半年後, 煩躁而死, 不可救藥者.

汪按: 產者, 常也, 可不服藥. 痘則病也, 當以藥調. 惟藥之不當, 反不如勿藥耳. 所云三, 四日, 七, 八日者, 當參之形色, 不可執一.

【解釋】

전해 내려오기를 痘瘡이 드문드문 수십 개 혹은 백여 개에 지나지 않고 모양이 둥글게 솟아 오른 것은 狀元痘라 하여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나는 삼사일 사이에는 辛涼解毒藥 한 첩만을 사용하여 많이 복용할 필요가 없고 칠팔일 사이에는 甘溫托漿藥 한 첩을 사용하는데 많아도 두 첩은 넘지 않으니 漿液이 가득 차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일찍이 드문드문 나는 痘를 본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4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1.  
翟良, 明末의 醫家. 字는 玉華. 『藥性對答』, 『經絡匯編』, 『醫學啓蒙匯編』, 『痘科類編釋意』 등서를 著述함.  
44) 謝觀 編著. 新編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946.  
聶尚恒: 字는 久吾, 明代의 醫家. 특히 痘疹에 뛰어남. 著書로는 『醫學彙函』, 『活幼心法』, 『痘疹心法』, 『痘疹論』 등이 있음.

漿液이 부족해서 딱지가 생긴 후에 눈병을 앓다가 心經과 肝經으로 毒이 흘러 들어가 수개월 혹은 반년 뒤에 煩躁해서 죽었으니 약으로도 구할 수 없었다.

汪按: 출산은 정상적인 것이니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痘證은 병이니 마땅히 약으로 조리해야 한다. 그러나 약이 적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삼사일, 칠팔일이라고 말한 것은 마땅히 形色을 참고해야지 날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 【考察】

본 論은 痘瘡이 발생한 후의 진단을 제시하였다. 痘瘡이 드문드문 나면서 둥글게 솟아오른 것을 壯元痘라 하는데, 이는 3~4일 이내에는 辛涼解毒藥을, 7~8일 사이에는 甘溫托漿藥을 사용하여 漿液이 가득 생기도록 해야 한다. 痘瘡은 漿液이 부족하면 딱지가 생긴 후에 毒이 心肝으로 들어가서 몇 개월 후에 煩躁해서 죽게 되며 이는 약으로도 살릴 수가 없다.

## 19.痘證限期論

#### 【原文】

痘證限期, 近日時醫, 以為十二日結痂之後, 便云收功; 古傳百日內, 皆痘科事也. 愚有表侄女, 於三, 四月間出痘, 漿行不足, 百日內患目, 目珠高出眼外, 延至次年二月方死, 死時面現五色, 忽而青而赤而黃而白而黑, 蓋毒氣遍歷五臟, 三晝夜而後氣絕. 至今思之, 猶覺慘甚, 醫者可不慎哉! 十二日者, 結痂之限也, 況結痂之限, 亦無定期. 兒生三歲以後者, 方以十二日為準, 若初周以後, 只九日限耳, 未周一歲之孩, 不過七日限.

#### 【解釋】

痘證의 기간에 대해 요즘의 의사들은 12일에 딱지가 생긴 후에 다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기를 백일 내에는 모두 痘科의 일이라고 하였다. 나에게 오촌 조카딸이 있는데 삼사월 사이에 痘가 나오는데 漿液이 부족하여 백일 내에 눈병을 앓았으며 눈동자가 눈 밖으로 돌출되었는데 다음해 2월에 죽었다. 죽을 때 五色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푸르다가 붉어지고 노랗게 되더니 하얗게 되다가 까맣

게 변한 것은 대개 毒氣가 五臟에 두루 퍼졌기 때문으로 삼일밤낮이 지나서 숨이 끊어졌다. 지금 생각해 봐도 처참하게 느껴졌으니 의사가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십이일에 딱지가 생겼는데 더구나 딱지가 생기는 데에 정해진 기한은 없다. 아이가 태어나서 삼세가 된 후에 십이일을 표준으로 삼은 것이니 만약 일 년이 지난 후에는 다만 구일이라는 기한이 있을 뿐이며 일 년이 안 된 아이는 칠일이라는 기한을 지나지 않는다.

#### 【考察】

본 論은 痘證의 기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吳鞠通은 오촌 조카딸을 예로 들면서 痘證이 발생하지 백일 이내에는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痘가 발생하여 漿液이 부족하면 죽게 되는데 죽을 때 五色이 나타나는 것은 毒氣가 五臟에 두루 퍼졌기 때문이다. 吳鞠通시대의 의사들은 痘가 발생한지 12일 만에 딱지가 생기면 그 후에는 다 나온 것이라고 보지만, 痘證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니 12일 이후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 20.行漿務令滿足論

#### 【原文】

近時人心不古, 競尚粉飾, 草草<sup>(1)</sup>了事. 痘頂初渾, 便云漿足, 病家不知, 惟醫是聽. 漿不足者, 發痘毒瘡可醫治; 若發於關節隱處, 亦致喪命, 或成廢人; 患目煩躁者, 百無一生, 即不死而雙目失明矣. 愚經歷不少, 紫色大約以黃豆色為準, 痘多者腿腳稍清猶可. 愚一生所治之痘, 痘後毫無遺患, 無他謬巧, 行漿足也. 近時之弊, 大約有三; 一由於七日前過用寒涼, 七日後又不知補托, 畏溫藥如虎, 甚至一以大黃從事, 此用藥之不精也; 二由於不識漿色, 此目力之不精也; 三由於存心粉飾, 心地之不慈也. 余存心不敢粉飾, 不忍粉飾, 口過直而心過慈, 以致與世不合, 目擊兒之顛連疾苦而莫能救, 不亦大可哀哉! 今作此論, 力矯時弊, 實從數十年經歷中得來. 見痘後之證, 百難於痘前.

蓋痘前有漿可上, 痘後無漿可行; 痘前自內而外出, 外出者順, 痘後自外而內陷, 內陷者逆也. 毒陷於絡, 猶可以法救之; 毒陷於臟而臟真傷, 考古竟無良法可救.

由逆痘而死者，醫可以對兒；由治法不精，而遺毒死者，其何以對小兒哉？闕是論者，其思慎之於始乎！

汪按：北方之一以大黃從事，猶南方之傳用升發溫補也。然北方之法，在崇毒之證，有宜用者。余甥女出痘，于二十日外，猶日用大黃，計前後用大黃至四，五斤，石膏稱是，然後收功。每日服四兩大黃濃汁，方能進食，此亦不可不知。總之無一定之痘，故無一定之方，前論二言盡之矣。

【字句解】

(1)草草：대충대충하다.

【解釋】

요즘의 사람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 과장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일은 대충대충한다. 痘瘡의 꼭대기가 막 혼탁하는데 곧 漿液이 충족하다고 말하지만 환자의 가족은 모르고 오로지 의사의 말을 들을 뿐이다. 漿液이 부족한 것은 痘毒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의사는 치료할 수 있으나 만약에 관절의 은밀한 곳에 나타나면 생명을 잃게 되거나 폐인이 되며 눈병을 앓고 煩躁證이 생긴 경우에는 백명중에 한명도 살기 어려우니 죽지 않으면 두 눈이 실명한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적지 않는데 장액의 색깔이 대략 黃豆色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痘가 많은 것은 다리부분이 약간 물을 수 있는데 치료할 수 있다. 내가 평생을 치료한 痘는 털끝만큼도 후유증이 없는데 별다른 기술도 없이 漿液이 충족되게 하였다. 요즘의 폐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7일전에 寒涼藥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 인해 7일후에 補托하는 약을 사용하지 못하며 溫藥을 호랑이 같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일률적으로 大黃만을 사용하니 이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정통하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는 漿液의 색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세 번째는 일부러 과장하고 꾸미기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씨가 자상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일부러 감히 과장하고 꾸민 적도 없고 차마 그렇게도 하지 못하며 말이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마음이 지나치게 자상해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니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면 정말 애통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論을 지어서 의사들의 폐단을 힘써 바로잡고자 하니 실로 수

십년동안의 경험 속에서 얻은 것이다. 痘가 나타난 뒤의 證을 보면 痘가 발생하기 전보다 백배는 어려운 데 대개 痘가 나타나기 전에는 차오를 수 있는 漿液이 있지만 痘가 나타난 후에는 행할 수 있는 漿液이 없으며 痘가 나타나기 전에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나타나는 것은 順證이고 痘가 나타난 후에는 밖에서 안으로 함몰되는데 안으로 함몰되는 것은 逆證이다. 毒이 絡으로 함몰되면 일반적인 法으로 구할 수 있지만 毒이 臟으로 함몰되어 臟의 眞氣가 손상이 되면 예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痘의 逆證으로 죽게 되는 경우는 의사가 아이를 대할 수 있지만 治法이 정통하지 못해서 남은 毒으로 죽게 되는 경우는 아이를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는가? 이論을 읽은 자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汪按：北方에서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大黃을 사용하고 아직도 南方에서는 전문적으로 升發溫補하는 방법만을 사용한다. 그러나 北方의 방법은 엄중한 毒이 있는 證에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外姪女가 痘가 나오는데 20일후에 오로지 大黃만을 사용하였는데 계산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4~5근에 이르고 石膏도 이정도 단 후에 효과가 있었다. 매일 4냥의 大黃을 진하게 달인 즙을 복용하고 나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으니 이 또한 알아야 한다. 종합해 보건데 일정한 痘證이 없으므로 일정한 처방도 없다고 앞에서 말한 두 마디의 말로 대신한다.

【考察】

痘瘡이 나타난 후에 漿液이 부족한 것은 치료할 수가 있으나 만약에 관절의 은밀한 곳에 나타나면 생명을 잃게 되며 눈병을 앓고 번조증이 생긴 경우에는 죽지 않으면 실명한다. 漿液은 黃豆色을 기준으로 삼으며 충족이 되게 하면 낫는다. 다만 주의할 것은 첫째는 痘證발생후 7일 이내에 寒涼藥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 것이며 둘째로는 漿液의 색깔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일부러 마음을 과장하고 꾸미지 말아야 할 것이다. 痘가 발생하기 전보다 발생한 후가 더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漿液이 없으며 밖에서 안으로 함몰되는 逆證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逆證으

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의사의 잘못으로 죽는 일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1. 疹論

### 【原文】

若明六氣為病，疹不難治。但疹之限期最迫，只有三日。一以辛涼為主，如俗所用防風，廣皮，升麻，柴胡之類，皆在所禁。俗見疹必表，外道也。大約先用辛涼清解，後用甘涼收功。赤疹誤用麻黃，三春柳等辛溫傷肺，以致喘咳欲厥者，初用辛涼加苦梗，旋復花，上提下降；甚則用白虎加旋復，杏仁；繼用甘涼加旋復花以救之；咳大減者去之。凡小兒連咳數十聲不能回轉，半日方回如鷄聲者，千金葦莖湯合葶藶大棗瀉肺湯主之；近世用大黃者，殺之也。蓋葶藶走肺經氣分，雖兼走大腸，然從上下降，而又有大棗以載之緩之，使不急於趨下；大黃則純走腸胃血分，下有形之滯，並不走肺，徒傷其無過之地故也。若固執病在臟瀉其腑之法，則誤矣。

徵按：診，肺病也，凡腑藥都用不著。明明發于皮毛，非若瘡癩之發于陽明肌肉也。但為其有出沒之勢，故俗為透表，並不知疹為何物耳。

### 【解釋】

만약에 六氣가 病이 되는 것을 이해하면 疹은 치료하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疹의 기한이 아주 짧아서 단지 삼일정도이다. 일률적으로 辛涼을 위주로 하여 하는데 예를 들어 속세에서 사용하는 防風, 廣皮, 升麻, 柴胡같은 부류의 약물들은 모두 금기하는 약물이다. 속세에서 疹을 보면 반드시 表를 다스리는데 이는 外道이다. 대략 먼저 辛涼清解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뒤에 甘涼한 약물을 사용한다. 赤疹에 麻黃, 三春柳<sup>45)</sup> 등의 辛溫한 약물을 잘못 사용하면 肺를 손상시켜서 喘咳를 일으키고 欲厥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辛涼한 약물에 桔梗, 旋覆花를 加하여 위로는 끌어올리고 아래로는 내려주며 심한 경우에는 白虎湯에 旋覆花, 杏仁을 加하여 사용하고 계속해서 甘涼한 약물에 旋覆花를 加하여 구하며 기침이 많이 줄어든 경우

에는 제거한다. 무릇 소아가 연속적으로 수십번 이상을 기침하고 돌아올 수 없다가 반나절 만에 답이 우는 듯하면 千金葦莖湯에 葶藶大棗瀉肺湯을 합방해서 다스리며 근세에 大黃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다. 대개 葶藶子는 肺經의 氣分으로 달려가는데 비록 大腸으로 함께 달려갈지라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지만 大棗가 있어서 완만하게 해서 급히 아래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며 大黃은 순전히 腸胃의 血分으로만 달려가서 有形의 積滯를 攻下시키며 아울러 肺로는 달려가지 않으니 잘못이 없는 곳을 쓸모없이 손상시키기만 할 뿐이다. 만약 病이 臟에 있을 때 그 腑를 瀉하는 법칙만을 고집하면 잘못된 것이다.

### 【考察】

본 論은 疹의 證治를 제시하였다. 六氣가 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疹은 치료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다만 기한이 삼일정도로 病의 발전속도가 아주 빠르다. 疹의 治法은 먼저 辛涼清解하는 방법을 사용한 후에 甘涼한 약물을 사용한다. 赤疹에 辛溫한 약물을 잘못 사용하면 欲厥하게 되니 辛涼한 약물에 桔梗과 旋覆花를 加하여 위로는 끌어올리고 아래로는 내려주며, 심하면 白虎湯에 旋覆花와 杏仁을 加하여 사용한다. 소아가 頓咳에 걸리면 千金葦莖湯에 葶藶大棗瀉肺湯을 합방해서 사용해야 하며 大腸으로만 가고 肺로는 가지 않는 大黃은 절대 금기약이다. 소아과교재<sup>46)</sup>에 麻疹편에서 熱毒攻喉型에 대변이 乾結한 경우 生大黃과 芒硝를 加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吳鞠通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22. 瀉白散不可妄用論

### 【原文】

錢氏製瀉白散，方用桑白皮，地骨皮，甘草，粳米，治肺火皮膚蒸熱，日晡尤甚，喘咳氣急，面腫熱郁肺逆等証。歷來注此方者，只言其功，不知其弊，如李時珍以為瀉肺諸方之準繩，雖明如王晉三，葉天士，猶率意用之。愚按此方治熱病後與小兒痘後，外感已盡真氣不得歸

45) 江蘇新醫學院 編. 中藥大辭典(下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533.

檉柳라고 함. 疏風, 解表, 利尿, 解毒의 작용이 있음.

46) 王萍芬 主編. 中醫兒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121.

元, 咳嗽上氣, 身虛熱者, 甚良; 若兼一毫外感, 即不可用. 如風寒, 風溫正盛之時, 而用桑皮, 地骨, 或於別方中加桑皮, 或加地骨, 如油入面, 錮結<sup>(1)</sup>而不可解矣. 考『金匱』金瘡門中王不留行散, 取用桑東南根白皮以引生氣, 燒灰存性以止血, 仲景方後自注云: 小瘡即粉之, 大瘡但服之, 產後亦可服, 如風寒, 桑根勿取之. 沈日南注云: 風寒表邪在經絡, 桑根下降, 故勿取之. 愚按: 桑白皮雖色白入肺, 然桑得箕星<sup>(2)</sup>之精, 箕好風, 風氣通於肝, 實肝經之本藥也. 且桑葉橫紋最多而主絡, 故蠶食桑葉而成絲, 絲, 絡象也, 桑皮純絲結成象筋, 亦主絡; 肝主筋, 主血, 絡亦主血, 象筋與絡者, 必走肝, 同類相從也. 肝經下絡陰器, 如樹根之蟠結於土中; 桑根最為堅結, 詩稱: “徹彼桑土”, 『易』言: “系於苞桑”是也. 再按: 腎脈之直者, 從腎上貫肝膈, 入肺中, 循喉嚨, 挾舌本; 其支者, 從肺出絡心. 注胸中. 肺與腎為子母, 金下生水. 桑根之性, 下達而堅結, 由肺下走肝腎者也. 內傷不妨用之, 外感則引邪入肝腎之陰, 而咳嗽永不愈矣. 吾從妹八, 九歲時, 春日患傷風咳嗽, 醫用杏蘇散加桑白皮, 至今將五十歲, 咳嗽永無愈期, 年重一年, 試思如不可治之嗽, 當早死矣, 如可治之嗽, 何以至四十年不愈哉? 亦可以知其故矣. 遇見小兒久嗽不愈者, 多因桑皮, 地骨, 凡服過桑皮, 地骨而嗽不愈者, 即不可治, 伏陷之邪, 無法使之上出也, 至於地骨皮之不可用者, 余因仲景先師風寒禁桑皮而悟入者也. 蓋凡樹木之根, 皆生地中, 而獨枸杞之根, 名地骨者何? 蓋枸杞之根, 深入黃泉, 無所終極, 古又名之曰仙人杖, 蓋言凡人莫得而知其所終也. 木本之入下最深者, 未有如地骨者, 故獨異衆根, 而獨得地骨之名. 凡藥有獨異之形, 獨異之性, 得獨異之名者, 必有獨異之功能, 亦必有獨異之偏勝也. 地骨入下最深, 稟少陰水陰之氣, 主骨蒸之勞熱, 力能至骨, 有風寒外感者, 而可用之哉! 或曰: 桑皮, 地骨, 良藥也, 子何畏之若是? 余曰: 人參, 甘草, 非良藥耶? 實証用人參, 中滿用甘草, 外感用桑皮, 地骨, 同一弊也.

【字句解】

(1)錮: 단단하다.

(2)箕星: 이십팔수의 일곱째별. 방위는 동쪽.

【解釋】

錢乙이 瀉白散을 만들었는데 처방에 桑白皮, 地骨

皮, 甘草, 粳米를 사용하여 肺火로 인해 피부가 蒸熱하고 오후 서너시에 더욱 심하고 喘咳氣急하고 얼굴이 붓고 熱이 鬱滯되고 肺逆 등의 증을 다스린다. 역대로 이 처방을 주석한 것에 단지 그 공을 말할 뿐 그 폐단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李時珍이 그것으로 瀉肺하는 모든 처방들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비록 王晉三<sup>47)</sup>, 葉天士 같이 밝을지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처방을 사용하였다. 내가 살펴 보건데 이 처방은 熱病후나 小兒痘證후에 外感이 이미 다하였으나 이미 眞氣가 사라져 회복되지 않아서 咳嗽上氣와 身虛熱을 다스리는 데에 아주 좋으며 조금이라도 外感을 겸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에 風寒이나 風溫이 마침 盛할 때에 桑白皮<sup>48)</sup>, 地骨皮<sup>49)</sup>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처방 속에 桑白皮를 추가하거나 地骨皮를 추가하면 기름을 부은 것처럼 단단하게 뭉친 것과 같다. 고찰해 보건데 『金匱要略』의 金瘡門중의 王不留行散은 桑東南根白皮를 사용해서 生氣를 끌어내면서 燒存性으로 止血시켰는데 張仲景이 처방 뒤에 주석에 이르기를 小瘡에는 가루를 뿌리고 大瘡에는 복용만 하며 산후에 또한 복용할 수 있으나 風寒 같은 경우에는 桑根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sup>50)</sup>. 沈日南<sup>51)</sup>이 주석에 이르기를 風寒表邪가 경락에 있을 때에는 桑根은 하강하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

47) 謝觀編著. 新編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1357.  
王子掇을 말함. 字는 晉三. 清代의 醫家. 著書로는 『絳雪園古方選註』三卷, 『得宜本草』一卷, 『傷寒古方通』二卷 등이 있음

48)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244.  
桑白皮: 瀉肺平喘, 利水消腫

49)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95.  
地骨皮: 涼血退蒸, 清肺降火

50)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367.  
“小瘡即粉之, 大瘡但服之, 產後亦可服, 如風寒, 桑東根勿取之.”

5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3.  
沈明宗을 말함. 清代의 醫家. 字는 日南. 어릴 때 일찍이 禪宗을 배우고 겸하여 醫學을 배웠는데, 仲景의 學을 연구하여 編注에 『傷寒十經辨證治法』, 『張仲景金匱要略』24권이 있음.

보건데 桑白皮는 色이 비록 白色이어서 肺로 들어갈 지라도 穢은 箕星의 精을 얻는데 箕는 風을 좋아하고 風氣는 肝에 통하니 실로 肝經의 本藥이다. 게다가 穢은 가로 무늬가 아주 많아서 絡을 다스리므로 누에는 穢을 먹고 실을 만드는데 실은 絡의 형상이며 穢나무 껍질은 순전히 실이 뭉쳐서 筋같이 된 것으로 또한 絡을 다스리며 肝은 絡을 주관하고 肝은 筋을 주관하고 血을 주관하는데 絡 또한 血을 주관하니 筋과 絡처럼 생긴 것은 반드시 肝으로 들어가니 유유상종이다. 肝經은 陰器로 하락하는데 나무뿌리가 땅속에 박힌 것과 같으며 穢나무 뿌리가 가장 단단하게 뭉치니 『詩經』에 이르기를 “徹彼桑上”이라 하였고<sup>52)</sup>, 『易』에 이르기를 “繫于苞桑”이라고 말한 것<sup>53)</sup>이 이것이다. 다시 접근해 보건데 腎脈이 곧장 가는 것은 腎으로부터 肝과 絳격막으로 뚫고 올라가서 肺속으로 들어가 喉嚨을 돌아 혀뿌리를 끼고 돌며, 그 가지라는 것은 肺에서 心으로 이어져 胸中으로 간다. 肺와 心은 子母관계로 金이 와서 물을 생한다. 穢나무 뿌리의 성질은 아래로 도달하고 단단하니 肺에서 아래에 있는 肝腎으로 달려간다. 內傷에 거리낌 없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外感에는 邪氣를 데리고 肝腎의 陰으로 들어가니 기침이 영원히 낫지 않는다. 내 사촌누이가 팔구살 때에 봄날 傷風咳嗽을 앓았는데 의사는 杏蘇散에 桑白皮를 加하여 사용하니 지금 오십세가 되어도 기침이 영원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며 시험 삼아 생각해 보건데 만약 치료할 수 없는 咳嗽라면 일찍 죽어야 하는데 치료할 수 있는 咳嗽라면 어찌 사십세가 되어서도 낫지 않았겠는가? 또한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내가 소아의 오랜 기침이 낫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桑白皮나 地骨皮로 인한 것으로 무릇 桑白皮나 地骨皮를 지나치게 복용하여서 기침이 낫지 않는 경우에는 다스릴 수 없으니 숨어서 함몰되는 邪氣를 위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地骨皮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張仲景이 風寒에 桑皮를 禁한 것으로 인해 깨달은 것이다. 대개 무릇 나무의 뿌리는 모두 땅

속에서 나는데 유독 枸杞나무의 뿌리를 地骨皮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개 枸杞의 뿌리는 깊이 黃泉으로 들어가서 다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仙人杖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평범한 사람은 끝나는 바를 모른다고 한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것이 地骨皮만한 것이 없으므로 다른 종류의 뿌리보다 독특하니 홀로 地骨皮라는 이름을 얻었다. 무릇 약에는 독특한 형태와 독특한 성질과 독특한 이름이 있는 것은 반드시 독특한 효능이 있으며 또한 반드시 독특한 偏勝이 있다. 地骨皮는 아래로 가장 깊이 들어가 少陰의 水陰之氣를 받았기 때문에 骨蒸의 勞熱을 주치하며 힘이 빠까지 이를 수 있는데 風寒外感에 쓸 수 있겠는가! 或者가 말하기를 桑白皮와 地骨皮는 좋은 약인데 당신은 어찌 이같이 두려워하는가? 라고 하니, 나는 人蔘과 甘草는 좋은 약이 아닌가? 實證에 人蔘을 사용하고 中滿에 甘草를 사용하고 外感에 桑白皮와 地骨皮를 사용하는 것은 같은 弊端이라고 말한다.

#### 【考察】

본 論은 瀉白散을 外感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瀉白散은 皮膚가 蒸熱한데 오후 서너시에 더욱 심함, 喘咳氣急, 얼굴이 붓고 熱이 鬱滯됨, 肺逆 등의 肺熱이 盛한 증을 다스린다. 이 처방은 熱病後와 小兒痘證後에 外感은 이미 다 제거되었으나 아직 眞氣가 회복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咳嗽上氣, 身虛熱 등을 치료하는 데에 아주 좋으며, 다만 조금이라도 外感을 겸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桑白皮는 아래로 도달하고 단단하니 肺에서 肝腎으로 달려간다. 地骨皮는 아래로 가장 깊이 들어가서 少陰의 水陰之氣를 받았기 때문에 骨蒸勞熱을 주치하며 힘이 빠까지 이를 수 있다. 그래서 桑白皮와 地骨皮는 內傷을 다스리는 약이니 外感의 초기나 外感을 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實證에 人蔘을 사용하고 中滿에 甘草를 사용하고 外感에 桑白皮와 地骨皮를 사용하는 것은 다 같은 弊端이라는 말 한마디로 본 論의 내용을 대신할 수가 있다.

52) 李元燮, 詩經, 서울, 圖書出版 成均書館, 1979, p.202.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 今女下民, 或敢侮予.”  
53) 김석진, 대산 주역강의(1), 과주시, 한길사, 2005, p.403.  
“九五, 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繫于苞桑.”

### 23.萬物各有偏勝論

【原文】

無不偏之藥，則無統治之方。如方書內所云：某方統治四時不正之氣，甚至有兼治內傷產婦者。皆不通之論也。近日方書盛行，莫過汪訥庵『醫方集解』一書，其中此類甚多，以其書文理頗通，世多讀之而不知其非也。天下有一方而可以統治四時者乎？宜春者即不宜夏，宜春夏者更不宜秋冬。余一生體認物情，只有五穀作飪<sup>(1)</sup>。可以統治四時餓病，其他未之聞也。在五穀中尚有偏勝，最中和者莫過飲食，且有冬日飲湯，夏日飲水之別。況於藥乎！得天地五運六氣之全者，莫如人，人之本源雖一，而人之氣質，其偏勝為何如者？人之中最中和者，莫如聖人，而聖人之中，且有偏於任，偏於清，偏於和之異。千古以來不偏者，數人而已。常人則各有其偏，如『靈樞』所載陰陽五等可知也。降人一等，禽與獸也；降禽獸一等，木也；降木一等，草也；降草一等，金與石也；用藥治病者，用偏以矯其偏。以藥之偏勝太過，故有宜用，有宜避者，合病情者用之，不合者避之而已。無好尚，無畏忌，惟病是從。醫者性情中正和平，然後可以用藥，自不犯偏於寒熱溫涼一家之固執，而亦無籠統治病之弊矣。

汪按：食能養人，不能醫病；藥能醫病，不能養人。無病而服藥，有病而議藥，此人之大患也。茯苓，甘草，誤用亦能殺人；巴豆，砒霜，對病即能起死。舍病而論藥，庸人之通病也。又按：今世醫者學醫，惟求其便；病家擇醫，惟求其穩；然非通何由得便，非當無所謂穩；舍通而求便，舍當而求穩，必夭人性命矣。

【字句解】

(1)飪：飯과 同字

【解釋】

치우치지 않은 약물이 없으면 통치하는 처방도 없다. 만약에 方書에 “어떠한 처방이 四時의 不正한 氣를 통치할 수 있고 심지어 內傷과 婦人科를 함께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면 모두 통하지 않은 논리이다. 근래 성행하는 方書로 汪訥庵의 『醫方集解』만한 책이 없는데 그 속에 이 같은 부류가 아주 많으나 책 속의 文理가 자못 통하여 속세에서는 많이 읽어서 그 잘못을 알지 못한다. 천하에 하나의 처방으로 四時를 統治할 수 있겠는가? 봄에 적합한 것은 여름에 적합하지 않고 여름에 적합한 것은 더욱 가을과 겨울에

적합하지 않는다. 나는 일생에 物情을 몸소 익혔는데 단지 五穀으로 지은 밥만이 四時의 굶주린 病을 통치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五穀중에도 오히려 偏勝이 있다. 가장 中和한 것은 음식만한 것이 없으며 게다가 겨울에는 탕을 마시고 여름에는 물을 마시는 구별이 있는데 하물며 약에 있어서야! 天地의 五運六氣를 얻은 것으로 사람만한 것이 없는데 사람의 本源은 비록 하나이지만 사람의 기질이 偏勝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 중에 가장 中和한 것으로 聖人만한 것이 없는데 聖人중에 任에 치우치고 淸에 치우치고 和에 치우침의 다름이 있다.<sup>54)</sup> 千古 이래로 치우치지 않은 자는 몇 사람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은 각기 치우침이 있는데 예를 들면 『靈樞』에 陰陽五 등이 실린 것으로 알 수 있다. 사람보다 한 등급 낮은 것이 날짐승과 길짐승이고 이 짐승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은 나무이며 나무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은 풀이며 풀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은 금과 돌이며 약을 사용하고 病을 치료하는 것은 치우침으로 치우침을 바로잡는 것이다. 약물의 偏勝이 지나치므로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도 있으며 病의 상태에 합치되면 사용하고 病의 상태에 합치되지 않으면 피할 따름이다. 무조건 좋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오로지 病을 따른다. 의사는 性情이 中正和平한 연후에 약을 사용할 수 있으면 寒熱溫涼중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는 데에 치우칠 것까지는 없으며 또한 두루뭉술하게 病을 통치하는 폐단은 없게 된다.

汪按：음식을 사람을 기를 수 있지만 病을 치료할 수는 없으며 약은 病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사람을 기를 수는 없다. 病이 없는데도 약을 복용하고 病이 있는데도 약만을 議論만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다. 茯苓과 甘草도 誤用하면 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巴豆와 砒霜도 證에 맞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病을 살피지 않고 藥만을 論하는 것은 실력이 낮은 사람의 일반적인 폐단이다. 또 살펴 보건데 지금

54) 李基東 譯解. 孟子講說.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p.414.

孟子曰伯夷，聖之淸者也，伊尹 聖之任者也，柳下惠 聖之和者也.라는 원문에 대해서 淸을 淸雅함으로, 任을 사명감이 넘침으로, 和를 온화함으로 해석하였다.

의사들은 의학을 배우면서도 오로지 그 편리함을 구하며, 환자들은 의사를 선택하면서도 안정되는 것만을 구하는데, 그러나 정통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편리함을 얻을 것이고 적당하지 않으면 이른바 안정되는 것은 없으며, 정통한 것을 버리고 편리한 것만을 구하며 적당한 것을 버리고 안정된 것만을 구한다면 반드시 사람의 목숨이 일찍 끊어지게 할 것이다.

#### 【考察】

세상만물에는 각기 偏勝이 있다. 약물이 치우침이 없다면 病을 치료하는 처방도 있을 수가 없다. 가장 中和한 것으로 음식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까지도 겨울에는 탕으로 마시고 여름에는 물로 마시는 구별이 있다. 사람 중에서도 가장 中和한 사람은 聖人인데 가장 中和한 聖人도 任·淸·和에 치우치는 차이가 있다. 약을 사용해서 病을 치료하는 것은, 치우치는 것으로 치우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약물은 病의 상태에 적합하면 사용하고 病의 상태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의사는 마음이 和平한 후에 약을 사용하여야 寒熱溫涼중 어느 하나에 치우칠 것까지는 없으며, 두루뭉술하게 病을 통치하는 폐단은 없게 된다.

## 24. 草木各得一太極論

#### 【原文】

古來著本草者，皆遂論其氣味性情，未嘗總論夫形體之大綱，生長化收藏之運用，茲特補之。蓋蘆主生，幹與枝葉主長，花主化，子主收，根主藏，木也；草則收藏皆在子。凡幹皆升，蘆勝於幹；凡葉皆散，花勝於葉；凡枝皆走絡，鬚勝於枝；凡根皆降，子勝於根；由蘆之升而長而化而收，子則復降而升而化而收矣。此草木各得一太極之理也。

愚之學，實不足以著書，是編之作，補苴罅漏<sup>(1)</sup>而已。未附二卷，解兒難，解產難，簡之又簡，只摘其吃緊<sup>(2)</sup>大端，與近時流弊，約略言之耳。覽者諒之。

#### 【字句解】

(1) 補苴罅漏: 글이나 이론의 결점·결함을 보충하다. 보충하고 수정하다.

(2) 吃緊: 중요하다.

#### 【解釋】

예로부터 本草를 저술하는 자는 모두 氣味와 性情을 차례로 논하였으며 形體의 大綱과 生長化收藏의 運用을 총론한 적이 없으니 이에 특별히 이를 보충한다. 대개 蘆頭는 生을 주관하고 줄기와 가지와 잎은 長을 주관하고 꽃은 化를 주관하며 열매는 收를 주관하며 뿌리는 藏을 주관하는 것으로 木이다. 草는 收와 藏이 열매에 있다. 무릇 줄기는 모두 오르는데 蘆頭는 줄기보다 강하며 무릇 잎은 모두 흩어지는데 꽃은 잎보다 강하며 무릇 가지는 모두 길로 달려가는데 수염이 가지보다 강하며 무릇 뿌리는 모두 내려가는데 열매는 뿌리보다 강하며 蘆頭의 生長化收로부터 열매가 맺히면 다시 下降하여 降生化收한다. 이 草木은 각각 하나의 태극의 이치를 얻었다.

나의 학식이 실로 책을 저술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책을 펴낸 것은 빠진 것을 보충하고자 할 따름이다. 책 말미에 『解兒難』과 『解產難』 두 권을 부쳤으며 내용이 간략하고도 또 간략하다. 다만 중요한 大綱과 근래에 유행하는 폐단을 뽑아내서 대략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책을 읽는 자들은 양해 바란다.

#### 【考察】

本草를 저술하는 자가 氣味와 升降浮沈을 논하면서도 약물의 형태와 부위를 논한 적은 없었다. 약물의 부위가 다르면 그 작용력도 다르다. 生長化收藏의 논리로 약물의 작용력을 설명하였다.

앞사람의 빠트린 것을 보충하고자 이 책을 吳鞠通은 저술하게 되었다. 『解兒難』과 『解產難』 두 권은 긴요한 大綱과 流行하는 弊端을 간략히 말했을 뿐이다.

## IV. 總括 및 結語

『溫病條辨』중 『解兒難』은 총 24편으로 『解兒難題詞』, 『兒科總論』, 『俗傳兒科爲純陽辨』, 『兒科用藥論』, 『兒科風藥禁』, 『瘧因質疑』, 『濕瘧或問』, 『瘧有寒熱虛實四大綱論』, 『小兒瘧病總論』, 『小兒瘧病總論』, 『六氣當汗不當汗論』, 『疳疾論』, 『痘證總論』, 『痘證禁表藥論』, 『痘證初起用

藥論, 『治痘明家論』, 『痘瘡稀少不可恃論』, 『痘證限期論』, 『行漿務令滿足論』, 『疹論』, 『瀉白散不可妄用論』, 『萬物各有偏勝論』, 『草木各得一太極論』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아과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解兒難題詞』에서는 解兒難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너무 따뜻하게 감싸고 배불리 먹이는 것과 의사가 너무 경솔하게 치료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兒科總論』에서는 소아의 특징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술하였다. 소아는 臟腑가 薄弱하고 肌膚가 성겨서 傳變하기가 쉬우며 쉽게 感受받으며 用藥에 있어서도 조금만 證에 맞지 않아도 변화를 알기가 힘들니 치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俗傳兒科爲純陽辨』에서는 소아남녀의 生長發育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소아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니 지나치게 공격적인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兒科用藥論』에서는 소아들의 用藥을 제시하였다. 소아에게 苦寒한 약물을 많이 사용하면 生長發育하는 氣를 치니 아이는 진액이 모자라서 건조해진다. 그래서 酸甘化陰하는 六味地黃丸을 사용한다.

『兒科風藥禁』에서는 소아과 질환에 發汗法을 제멋대로 일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소아과 질환에 辛溫解表하는 風藥을 많이 사용하면 대부분 血이 손상되어 瘧病이 발생하게 된다. 瘧瘍이 오래되면 당연히 發汗을 禁해야 하나 瘧證 초기에는 表邪가 있을 때에 解表시키는 경우도 있다.

『瘧因質疑』에서는 吳鞠通이 『素問』의 “諸瘧項強, 皆屬於濕”란 문구에 의심을 품은 것에 대해 논술하였다. 濕의 성질은 부드러운데 뻣뻣한 瘧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니 후학들에게 이 문구의 연구를 당부하고 있다.

『濕瘧或問』은 瘧의 病因을 제시하였다. 濕을 제외한 六淫의 邪氣가 모두 瘧을 일으킬 수 있는데 濕은 風과 함께 인체를 침범해야 瘧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瘧有寒熱虛實四大綱論』에서는 小兒瘧病의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六淫의 外邪가 일으킨 것은 實瘧이

고, 陰液이 손상되어서 일어난 것은 虛瘧이고, 風寒과 風濕이 일으킨 것은 寒瘧이고, 風溫, 風熱, 風暑, 燥火가 일으킨 것은 熱瘧이다.

『小兒瘧病癘病共有九大綱論』에서는 小兒瘧病의 辨證論治를 제시하였다. 小兒瘧病을 모두 9개로 나누었는데, 六淫에 의한 것으로는 寒瘧, 風溫瘧, 溫熱瘧, 暑瘧, 濕瘧, 燥瘧 등 6개이며 外傷에 의한 것으로는 客忤瘧 1개이며 內傷에 의한 것으로는 內傷飲食瘧, 本臟自病 등 2개가 있다.

『小兒易瘧總論』에서는 소아가 瘧病에 잘 걸리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아의 臟腑가 어려서 傳變이 신속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外邪에 感受받았을 때 어떤 邪氣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무조건 發表藥을 투여하는 것이다.

『瘧病癘病總論』에서는 瘧, 癘, 痢, 厥 등의 證治를 제시하였다. 瘧은 寒實證이고 癘는 實熱證이다. 虛熱의 癘도 있으며 癘病이 瘧病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瘧病이 癘病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痢證에도 虛實의 구별이 있다. 그래서 癘와 瘧을 혼동하지 말고 寒熱虛實을 잘 판단하여야 한다.

『六氣當汗不當汗論』에서는 六淫의 邪氣중 發汗시킬 수 있는 것과 發汗시킬 수 없는 것을 제시하였다. 發汗法을 사용하는 경우는 寒邪에 感受받은 경우와 濕邪가 寒邪를 겸한 경우이다. 그 외 風, 溫, 暑, 火, 燥 등에는 發汗法을 사용할 수가 없으며 寒邪라도 땀이 있으면 發汗法을 사용할 수가 없다.

『疳疾論』에서는 疳疾의 證治를 제시하였다. 부모가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거나 아이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서 식사량을 지나치게 많이 먹이거나 억지로 먹여서 疳疾이 발생한다. 小兒疳疾을 다스리는 治法 12가지를 제시하였다.

『痘證總論』에서는 痘證의 病因과 病機를 제시하였다. 痘證은 先天胎毒에 의한 것으로 子午卯酉年과 같은 君火가 司天하는 해에 人身의 君火의 氣와 충돌하여 痘證이 나타난다.

『痘證禁表藥論』에서는 痘證의 禁忌와 證治를 제시하였다. 痘證은 君火의 溫氣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니 表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痘는 피부에 딱지가 생기게 해야 하나 表藥을 사용하게 되면 表를 虛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위험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痘證初起用藥論』에서는 痘證초기의 用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痘證초기에는 대부분 辛涼解肌, 芳香透絡, 化濁解毒해야 하며 氣血이 虛寒한 경우에는 溫煦保元해야 한다. 發病해서 7일까지는 外邪를 먼저 제거해야 만이 7일후에는 胎毒만 남을 뿐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다.

『治痘明家論』에서는 痘證을 치료하는 역대 醫家들의 학설을 바탕으로 錢乙과 陳文中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痘科에는 일정한 證도 처방도 없다고 한 것처럼, 정확한 辨證을 해야 만이 치료를 할 수가 있다.

『痘瘡稀少不可恃論』에서는 痘瘡이 발생한 후의 診斷을 제시하였다. 痘瘡이 발생한 후에 3~4일 이내에는 辛涼解毒藥을, 7~8일 사이에는 甘溫托漿藥을 사용하여 漿液이 가득 생기도록 해야 한다. 痘瘡은 漿液이 부족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痘證限期論』에서는 痘證의 기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吳鞠通시대의 의사들은 痘가 발생한지 12일 만에 딱지가 생기면 그 후에는 다 나은 것이라고 보지만, 痘證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니 12일 이후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吳鞠通은 백일이내에는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行漿務令滿足論』에서는 痘瘡발생후 漿液을 충족되게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漿液은 黃豆色을 기준으로 삼으며 충족이 되게 하면 낫는다.

『疹論』에서는 疹의 證治를 제시하였다. 疹은 病的 발전 속도가 아주 빠르며 疹의 治法은 먼저 辛涼清解하는 방법을 사용한 후에 甘涼한 약물을 사용하되 대항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瀉白散不可妄用論』에서는 瀉白散을 外感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瀉白散에 桑白皮와 地骨皮가 들어 있는데 桑白皮와 地骨皮는 內傷을 다스리는 약이니 外感초기나 外感을 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萬物各有偏勝論』에서는 세상만물은 모두 각기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약물이 치우침이 없다면 病을 치료하는 처방도 있을 수가 없다. 약을 사용해서 病을 치료하는 것은 치우치는 것으로 치우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草木各得一太極論』에서는 草木을 太極論의 이론인 生長化收藏에 맞추어서 설명하였다.

종합해보건데 『解兒難題詞』에서는 解兒難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兒科總論』, 『俗傳兒科爲純陽辨』, 『兒科用藥論』, 『兒科風藥禁』, 『瀉白散不可妄用論』, 『六氣當汗不當汗論』에서는 소아과 질병의 특징과 用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瘰因質疑』, 『濕瘰或問』, 『小兒易瘰總論』, 『瘰病瘰病總論』, 『瘰有寒熱虛實四大綱論』, 『小兒瘰病瘰病共有九大綱論』에서는 瘰病的 病因 辨證論治를 제시하였다. 『疳疾論』에서는 疳疾의 證治를 제시하였다. 『痘證總論』, 『痘證禁表藥論』, 『痘證初起用藥論』, 『治痘明家論』, 『痘瘡稀少不可恃論』, 『痘證限期論』, 『行漿務令滿足論』에서는 痘證의 病因病機, 用藥, 禁忌, 診斷, 辨證論治, 期限 등 痘證의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제시하였다. 『疹論』에서는 麻疹의 證治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偏勝에 대해서 설명한 『萬物各有偏勝論』과 草木을 生長化收藏과 연결시켜서 설명한 『草木各得一太極論』이 있다. 여기에서 다룬 소아과 질병은 瘰, 疳, 痘, 疹 등 4대 질병으로서 이미 알려진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과 일반 의사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하였고 다른 醫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도 보충하였으며 또한 아이들의 보호자인 부모가 지켜야할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지적하였다.

## 참고문헌

<단행본>

1. 江蘇新醫學院 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下冊 p.1533.
2. 康寔鎭 外3人 編. 中韓辭典. 牡丹江.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1.
3.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3.
4. 顧伯康 主編.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49.
5. 大山 金碩鎭 著. 大산주역강의(1). 과주. 한길사. 2005. p.215, 403.

6.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55, 59, 230, 367, pp.285-286
7. 동아출판사편집국. 동아새漢韓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94.
8.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95, 244.
9. 謝觀 編著. 新編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946, 1357.
10.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鼎談. 1997. p.98, 109, pp.106-111.
11.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8. p.875, pp.870-874.
12.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大邱. 金星印刷社. 2001. 卷一 p.175, 182, pp.11-19. 卷九 p.239, 544.
13. 吳瑭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6, 19, 25, 26, 27, 104, 195.
14. 王萍芬 主編. 中醫兒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121.
15. 李基東 譯解. 孟子講說.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p.414.
16. 李元燮. 詩經. 서울. 圖書出版 成均書館. 1979. p.202.
17.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p.2687.
18.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7, 87, 119, 143, 176, 199, 232, 249, 261, 263, 297, 336.
19. 滑壽 原著. 難經本義. 台南市. 世一書局印行. 1984. p.36.